

朴通事新註新譯(十)^{*}

李陸禾^{**}

본 논문은 <朴通事新註新譯(一)>에서 <朴通事新註新譯(九)>1)의 후속 작업으로, 제79단락부터 제87단락까지의 주석과 번역문이다. 본 논문의 研究背景과 譯註의 原則 그리고 參考 引用한 文獻에 관한 사항은 <朴通事新註新譯(一)>과 <朴通事新註新譯(二)>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本文

第79話

不知道那裏躑²⁾死了一個蝸蜒³⁾, 我聞了騷氣⁴⁾, 惡心上來, 冷疾發的當不的, 拿些水來我漱口, 疾忙將⁵⁾苕帚⁶⁾來, 綽⁷⁾的乾淨着, 將兩根香來燒. 我如今不吃飯,

* 이 연구는 2016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光州大學校 國際言語文化學部 教授

1) 中國學論叢 第44輯(2014년)

2) 躑: 踩, 踏.

3) 蝸蜒: 應是“蚰蜒”. 蚰蜒, 古稱“草鞋虫”. 節足動物, 像蜈蚣而略小, 體色黃褐, 有細長的脚十五對, 生活在陰濕地方, 捕食小虫, 有益農事.

4) 騷氣: 腥臭的氣味, 騷, 通“臊”.

5) 將: 同現代漢語“把”字.

6) 苕帚: 卽“掃帚”. “苕”字本作“芳”. 蘆葦的花. 苕秆可爲帚, “帚”, 同“帚”.

7) 綽: 擦拭. 偏斜. 元·武漢臣《老生兒》楔子:「庄兒頭有兩間草房, 綽掃一間, 教幾個村童, 養瞻你那身子去罷.」(許少峯 編, 《近代漢語大詞典》, 中華書局, 2008年, 頁301)

等一會吃。且休燒簽子⁸⁾，熬些茶芽⁹⁾來我吃。

【번역】

어디서 돈벌레¹⁰⁾가 밟혀서 죽었는지는 몰라도, 썩은 냄새를 맡아 구역질이 나고, 한기¹¹⁾가 올라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소. 입안을 행굴 물을 가져오시고, 빨리 빗자루를 가져다 깨끗하게 쓸어버리고, 향을 두어 개 가져와 피우시오, 난 지금 밥을 먹지 않고 좀 뒤에 먹을 것이요. 꽃이(산적)는 굽지 말고, 차나 끓여 마시도록 해 주게나.

第80話

長老¹²⁾의佛像鑄了麼¹³⁾? 鑄了三尊佛¹⁴⁾, 我待¹⁵⁾要上金來. 前日三更前後, 賊入來, 把我二三年布施來的金銀紗錠, 偷將¹⁶⁾去了, 沒計奈何¹⁷⁾. 我如今又往江

-
- 8) 燒簽子：類似現在的“烤羊肉串”。簽，用尖細的扦子串起來。元·缺名《貨郎旦》第四折：「兀那兩個，將這一簽肉出去，你兩個吃了時，可來服侍我。」
- 9) 茶芽：茶葉，就是“茶”。按，茶葉也叫“苦茶”，“茗”，“腊茶”，“牙茶”，“茶芽”等。
- 10) 原文‘蝻蜒’에 대해 諺解는 ‘지차리’다. ‘지차리’는 ‘그리마’의 옛말이다. 속칭 ‘돈벌레’라고 부르는 질죽동물이다. ‘蝻蜒(유연)’이 맞다.
- 11) 原文의 ‘冷疾’에 대해서, ‘냉사(冷邪)로 생기는 질환. 차가운 성질을 가진 사기(邪氣)를 말하는 것임’이라는 韓方의 설명을 볼 수 있다.
- 12) 長老：(1) 老年人。(2) 佛教對釋迦上首弟子的尊稱。如：長老舍利弗。(3) 住持僧的尊稱。(《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夾註】「僧有智德可尊者曰長老，又道高臘長呼爲須菩提，亦曰長老。」按，此作“住持僧的尊稱”解。
- 13) 麼：疑問詞。或作“莫”，“沒”。《黃鶴樓》三【雙調新水令】白：「我認的你，有些面熟，你敢是魚兒張麼？」(顧學頴 王學奇，《元曲釋詞》卷二，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4年，頁474)【單子解】「麼，本音모。俗用爲語助辭，音마，古人皆呼爲모，故或通作莫。怎麼，있다；來麼，오너라。又用如乎字之意者則曰：去麼，갈다；有麼，잇느너。元語麼道，니르느다，麼音마，今不用。」
- 14) 三尊佛：由主尊及左右兩脇侍組成的佛像形式。又稱三尊。【夾註】「過去佛、現在佛、未來佛謂三尊佛也，亦曰三世如來。」
- 15) 待：要，將要。《青衫淚》一：「時遇春三月，在公廡中悶倦，待往街市上私行一遭。」(李法白·劉鏡芙 編著，《水滸語詞詞典》，上海辭書出版社，1989年，頁202)
- 16) 將：語義虛化，置於單音節動詞之後，構成該詞的雙音節形式，表示動作的繼續或完成。如：殺將(搬運)、唱將(演唱)、持將(持)、取將(收取)等。

南¹⁸)地面裏布施去。一來¹⁹)是十分命不快²⁰)，告²¹)諸佛菩薩。願滿之日，死時也不愁。罷！罷！²²)，師傅²³)善因不滅。你休生慢心，沿路²⁴)上用心好去着²⁵)。往常²⁶)唐三藏師傅²⁷)，西天²⁸)取經去時節，十萬八千里途程²⁹)。正是³⁰)瘦禽也飛不道³¹)，壯馬也實勞蹄。這般遠田地³²)裏，經多少風寒暑濕，受多少日炙風吹，過多少惡山險水難路，見多少怪物妖精侵³³)他，撞多少猛虎毒虫定害³⁴)，逢多少惡

- 17) 沒計奈何：無法可想。《水滸傳》第三回：「當初不會得他一文，如今那討錢來還他，沒計奈何。父親自少教得奴家些小曲兒，來這裏酒樓上趕座子。」(《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 18) 江南：① 長江下游以南的地區，就是江蘇、安徽兩省的南部和浙江省的北部。② 泛指長江以南。按，此作“泛指長江以南”。
- 19) 一來：連詞。常與“二來”、“三來”等連用，列舉理由或目的。元·關漢卿《五侯宴》第四折：「一來慶賀功勞，二來犒賞孩兒。」
- 20) 不快：不幸，不順溜。元·馬致遠《陳搏高臥》第四折：「命不快，遭逢着這火醉婆娘，幹誤了我晚夕參聖一爐香。」(許少峯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145)
- 21) 告：此作“請求”。
- 22) 罷：猶算了。亦表示無何奈何。《儒林外史》第三十八回：「罷！罷！父親也料想不肯認我了！」(《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 23) 師傅：對僧道的尊稱。
- 24) 沿路：一路上。《二十年目睹之怪現狀》第三七回：「德泉沿路買了兩把團扇，幾張宣紙，又買了許多顏料、畫筆之類。」(《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 25) 着：同“著”。語氣助詞，猶“吧”。
- 26) 往常：過去的一段日子。元·白樸《牆頭馬上》第一折：「你往常打我罵我，今日為甚的央我？」(《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 27) 三藏師傅：【夾註】『三藏俗姓陳，名衛，洛州緱氏縣人也，號玄奘法師，貞觀三年奉勅往西域，取經六百卷而來，仍呼為三藏法師。(下略)』
- 28) 西天取經：西天，古代對印度的稱謂，因為印度古稱天竺，在中國西南方向，故略稱西天。【夾註】『西游記云，昔釋迦牟尼佛在西天靈山雷音寺，撰成經律、論三藏金經，順送東土解度群迷，問諸菩薩往東土尋取經人來，乃以西天去東土十萬八千里之程，妖怪又多，諸眾不敢輕諾，唯南海落迦山觀世音菩薩，騰雲駕霧，往東土去，遙見長安京兆府，一道瑞氣沖天，觀音化作者僧入城，此時唐太宗聚天下僧尼，設無遮大會，因眾僧舉一高僧為檀主說法，即玄奘法師也，老僧見法師曰：“西天釋迦造經三藏，以待取經之人。”法師曰：“既有程途，須有到時，西天雖遠，我發大願，當往取來。”老僧言訖，騰空而去，帝知觀音化身，即敕法師，往西天取經，法師奉勅行六年東還。』
- 29) 途程：路程，道路。
- 30) 正是：就是，確是。《古今小說》第二卷：「老歐睜開兩眼看了道：“爺爺，正是他！”」(許少峯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2382)
- 31) 飛不道：就“飛不到”。道，猶“到”。《京本通俗小說·錯斬崔寧》：「就是他明日有人來要我，尋道我家，也須有個下落。」(許少峯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409)
- 32) 田地：路程，道路。元·鄭廷玉《忍字記》第一折：「貧僧非是凡僧，我是個禪和尚，兩頭見日，行三百里田地哩。」(《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1991年)
- 33) 侵：侵襲，滲入。
- 34) 定害：攪憂，煩憂。元·張國賓《合汗衫》二折：「往常我哥哥見我，歡天喜地；今日見我，有些

物³⁵⁾刁蹶³⁶⁾，正是³⁷⁾好人魔障³⁸⁾多。行六年，受多少千辛萬苦，到西天取將經來，度脫³⁹⁾衆生各得成佛。師傅你也休忙，慢慢的到江南沿門布施，愿滿成就着，久後你也得證果⁴⁰⁾金身⁴¹⁾。

【번역】

某甲: 주지스님께서서는 불상의 주조(鑄造)를 마치셨는지요?

長老: 三尊佛⁴²⁾의 주조를 마치고, 불상에 금을 입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한밤중에 도둑이 들어 내가 이삼년 동안 보시(布施)받아 모아놓은 금과 돈을 모두 훔쳐갔습니다. 어쩔 수없이, 내

煩惱 …………… 必然見我早晚吃穿衣服定害他了，因此上恩多怨深。」(許少峯 主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290)

35) 惡物: 怪物。

36) 刁蹶: 乖劣，偏拗。《金瓶梅詞話》第九七回:「春梅叫將薛嫂兒來，如此這般和他說:“他爹臨去分付，替我兄弟尋門親事。……………他性兒也有些刁蹶些兒。”」(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447)【夾註】『音義』刁，難也。蹶，顛仆而不能行也。今按，法師往西天時，初到師陀國界，遇猛虎毒蛇之害，次遇黑熊精，黃風怪，地涌夫人，蜘蛛精，獅子怪，多目怪，紅孩兒怪，幾死僅免。又過棘鈞洞，火炎山，薄屎洞，女人國，諸惡山險水怪害，患苦不知其幾。此所謂刁蹶也。詳見《西遊記》。

37) 正是: 舊時戲曲、小說中的常用套語。後面用詩詞成熟語來總括其事。《二刻拍案驚奇》第十一卷:「一連吃了十來日酒，焦大郎費掉了好些錢鈔。正是: 歡喜破財，不在心上。」(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2382)

38) 魔障: 多難，困頓不得志。元·缺名《度柳翠》第四折:「一世飄揚，不離紅塵大道旁; 受了半生魔障，則你這楊花端的爲誰忙。」(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1306)【夾註】『編譯名義』云: 梵語魔，此云障也。能爲修道作障礙。昔釋迦出世時，魔王名波旬，若如來，供養恭敬，魔王依於佛法，得善利不念報息，而反欲加毀，故名波旬，此言惡中惡。

39) 度脫: 佛、道教語。謂超度解脫人世的生死苦難到，達仙佛境界。

40) 證果: 佛教。謂佛教徒經過長期修行而悟入妙道。唐·張鷟《朝野僉載》卷二:「禪師後證果，居於林慮山。」明·徐渭《翠鄉夢》第一出:「(玉通和尚)來到臨安，見山水秀麗，就於竹林峯水月寺，選勝安禪。住過有二十餘載，越覺得光景無多，證果不易。」【夾註】今按，證，應也; 果，果報也。金身者，佛三十二相，雲身真金色。言果報者，《觀經疏》云: 行眞實法感得勝報也。又修善得善果，作惡得惡報，謂之果報。又生時所作善惡謂之因，他日報應謂之果。謂證果者，如三藏法師取經東還，化爲梅檀佛如來。

41) 金身: 裝金的佛像。《西遊記》第七十七回:「我在雪山頂上，修成六丈金身。」(《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42) ‘三尊佛은 삼신불·삼세불이라고도 한다. 대개는 법신(法身)·보신(報身)·화신(化身)의 세 부처를 말하는데, 현세불인 석가여래·약사여래·아미타여래를 모시기도 하고, 과거·현재·미래불을 함께 모셔 삼존불이라고도 한다. 현세의 3불을 모시는 경우에는 삼세불(三世佛)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오늘 저 남쪽(江南)으로 보시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하나는, 그동안 모든 일들이 순조롭지 못하여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에게⁴³⁾ 자비를 구하고자 합니다.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죽어도 걱정이 없겠지요.

甲某: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스님께서서는 善因⁴⁴⁾의 業報가 불멸하십니다. 스님께서서는 自慢하지 마시고 가시는 길 내내 조심하십시오. 그 옛날 三藏法師께서는 천축(天竺)으로 불경을 구하시려고 가셨던 그 길이 십만 팔천리길 이었습니다. 날짐승도 날아서 당도할 수 없는 땅이요, 긴장한 말조차도 힘든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먼길을 그 얼마나 많은 추위와 더위를 겪고, 얼마나 혹독한 퇴약별과 비바람을 맞았으며, 얼마나 많은 험난한 산과 물길을 건너고, 얼마나 많은 요물과 요정들의 괴롭힘을 받고, 얼마나 많은 맹수와 독충에게 물리고, 또 얼마나 많은 괴물들에 수난을 당하셨겠습니까? ‘好人魔障多(선인은 많은 방해나 곤란이 따른다)’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육년 동안 천신만고 끝에 서역에 가서서 불경을 가져다가 중생을 해탈(解脫)도록 하시고 모두가 성불(成佛)하도록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도 서두르지 마시고 쉬엄쉬엄 강남에 가시어 집집마다 布施⁴⁵⁾를 받으시어 소원성취를 이루시고, 훗날 스님께서도 깨달음 얻으시고 成佛하십시오.

43) 原文 ‘諸佛菩薩’은 ‘모든 부처와 보살’을 말한다. 부처에는 ‘석가모니’,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 ‘미륵불’ 등이 있고, 보살은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등이 있다.

44) 原文 ‘善因’은 ‘善根’과 같은 말로 ‘좋은 과보를 낳게 하는 착한 일’이라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볼 수 있다.

45) 原文 ‘沿門布施’은 ‘집집마다 다니면 布施를 받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에서는 ‘沿門持鉢’, ‘沿門托鉢’이라는 어휘를 볼 수 있다.

第81話

叫一個泥水匠⁴⁶)和兩個垆工⁴⁷)來, 整治⁴⁸)這炕壁⁴⁹)。你有泥鏝⁵⁰)、泥托⁵¹)麼? 沒家事⁵²)時算甚麼泥水匠? 都有裏。做炕時, 死火炕⁵³)、燒火炕⁵⁴)都不要, 你只做饋⁵⁵)我煤火炕⁵⁶)着, 前面做一個煤爐。培磚⁵⁷)都有麼? 都有。如今疾忙買石灰、麻刀⁵⁸)去。將鐵杵⁵⁹)和鍋⁶⁰)來掘⁶¹)土, 這裏和⁶²)泥。且打將兩擔水來, 把那麻刀一打裏⁶³)和的勻着。你把那繩子在牆上驗⁶⁴)的正着。這一脫兒⁶⁵)無處

46) 泥水匠: 瓦匠; 建築工人。《水滸傳》第十四回:「這屋如何過得一冬, 待雪晴了, 去城中喚個泥水匠來修理。」(《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47) 垆工: (1) 粗活, 笨重的勞動。元·无名氏《看錢奴》第一折:「我每天家不會做甚麼營生, 則是與人家挑土築牆, 和泥托坯, 擔水運漿, 做垆工生活度日。」(2) 指幹粗活的人。《金瓶梅詞話》第三三回:「當下月娘、李嬌兒、孟玉樓、潘金蓮、李瓶兒, 都用轎子短搬, 兩個垆工擡過房子內。」按, 此作「幹粗活的人」。

48) 整治: 辦理。《水滸傳》第十回:「林冲的綿衣裙襖, 都是李小二渾家整治縫補。」

49) 炕: 北方人家的一種睡具。用土坯或磚頭砌成, 上為平面, 下留煙道回旋連接烟囪, 炕前搭爐臺, 生火通烟以取暖。

50) 鏝: 鐵杵也。即「鏝刀」。按, 鐵者曰鏝, 木者曰棧, 字亦作棧。

51) 托: 即「托板」。

52) 家事: 家火, 器物。元·缺名《劉弘嫁婢》第一折:「那但是人家使用的那吃食物件, 動用家事, 一年四季的柴米, 你都休着少了者。」(許少峯編, 《近代漢語大詞典》, 中華書局, 2008年, 頁865)

53) 死火炕: 不能取暖的土炕。(摘自【百度】, <元大都的燃料供應>)

54) 燒火炕: 應指用木柴、葦草生火的土炕。(摘自 百度, <元大都的燃料供應>)

55) 饋: 介詞。給、替。馮春田著, 《近代漢語語法研究》(山東教育出版社, 2000年):「介詞“給”由表示“給與”的動詞轉化而來。就“給”這個形式而言, 清代中期以後普遍可見。但是在元代, 又偶有寫作“歸”的例子; 在明代的文獻裏, 有的則寫作“饋”; 而到明末清初, 還有的寫作“己”。從語法上看, 由介詞“給”一系的字組成的“給”字結構, 既可以用在動詞前, 也可以用在動詞後, 跟介詞“與”的用法一致。」

56) 煤火炕: 用煤爐生火, 將熱能引進土炕取暖。(摘自 百度, <元大都的燃料供應>)

57) 培磚: 培, 應是坯(坏)。坯, 沒有燒過的陶器、磚瓦。《看錢奴》第一折:「與人家挑土築牆, 和泥托坯。」(《簡明古漢語詞典》, 四川人民出版社, 1986年) 按: 坯磚, 應是「土坯磚」, 「土坯」, 土坯磚, 指在模型裏制成的方形粘土塊, 可以用來盤灶、盤炕、砌牆。

58) 麻刀: 碎麻筋。同石灰和在一起用以抹牆等。《兒女英雄傳》第三二回:「索性勞你的駕, 連灰帶麻刀, 一就手兒給買了來, 再叫上他幾個泥水匠, 人多了好作話。」(許少峯編, 《近代漢語大詞典》, 中華書局, 2008年, 頁1221)

59) 杵: 同「錘」。錘東西用的一種工具。

60) 鍋: 鏟刀。

61) 掘: 刨, 挖。

62) 和: 攪拌, 攪和。

63) 一打裏: 一道, 一起。同「一搭」、「一搭裏」、「一答兒」、「一答裏」。元·缺名《朱砂担》第一折:「

控⁶⁶), 這的高處鑽⁶⁷些土, 打一個橛子⁶⁸控不的? 你只⁶⁹朝南做門兒, 那西邊做一個竈洞⁷⁰. 你爲甚麼這炕面上泥灰的不平正? 將泥鏝來再抹的光着. 枉⁷¹可惜了飯, 一般⁷²動脚動手做生活⁷³, 這般做的不成時, 不可惜了工錢? 咳, 我到處裏做生活時, 從來不會見這般細詳的官人⁷⁴. 你說甚麼話? 拙匠人巧主人.

【번역】

甲某: 미장이 한 사람과 막일꾼 두 사람을 불러다 온돌을 만들어야지! 자네는 흙손과 흙받기가 있는가?

泥匠: 연장이 없다면 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들(炕)을⁷⁵ 만드는데, 불을 들이지 않는 멩팅구리 구들

我與你做個護臂，一搭裏做賣買去，也不虧你。」(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2192)

64) 驗：驗證，檢查，察看。

65) 一脫兒：應是“一陀兒”。一塊，一處。同“一坨”、“一駝兒”。元·缺名《掙報恩》楔子：「來到這權家店，只見一個男子搭着個婦人，一坨坐着喝酒。」(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2209)

66) 控：用繩子等繞在物體上，再打上結。

67) 鑽：用錐狀的物體在另一物體上轉動穿孔。

68) 橛子：一頭兒削出尖的木椿。

69) 只：就。《盛世恒言》二一卷：「師父若教弟子三年嚴限，只在中原之地，度三千餘人，興俺道家。」(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頁1494)

70) 竈洞：【夾註】『音義』云：取灰之處。今按：竈。

71) 枉：白白地，徒然。《水滸全傳》第十六回：「他知道是金銀寶物，如何不來搶劫? 枉結果了性命，以此去不得。」(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1918)

72) 一般：同樣，相同。《金瓶梅》一回：「若乃持盈慎滿，則爲瑞士淑女，豈有殺身之禍，古今皆然，貴賤一般。」(白維國 編，〈金瓶梅詞典〉，中華書局，1991年，頁621)

73) 做生活：做工，幹活。《水滸全傳》第四回：「我這酒挑上去，只買與寺內火工道人、直廳、轎夫、老郎們做生活的吃。」(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2498)

74) 官人：對男子的尊稱、泛稱。《水滸傳》八回：「董西公，一位官人在小店裏講說話。」按：《夢梁錄》卷十三：「鋪席：『張官人諸史文籍鋪、徐官人幪頭鋪』此商人之稱。《武林舊事》卷六「諸色伎藝人」記：「棋待詔、金四官人；書會：李大官人；演史：周八官人等。此藝人之稱。」按，此作“客人”，即“兄弟們”。

75) ‘구들’ 또는 ‘온돌’이라는 명칭은 현재 우리의 전통가옥에서 볼 수 있는 가옥 즉 방바닥 전체를 따듯하게 하는 난방방법을 말하는 우리말이다. 강(炕, kang)은 중국 북쪽지역에서 쓰이는 가옥의 난방의 한 방식을 말한다. 앞의 註 49)번에서처럼, 실내의 한쪽에 벽돌 등을 쌓아 속이 빈 집대 형태의 구들을 만들어 火氣를 통하도록 열을 얻는 방식을 말함인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강(炕)’ 대신 ‘구들’로 번역하였다.

을 놓을까요? 아니면 나무로 불을 지피는 온돌을 놓을까요?

主人: 둘 다 필요 없고요, 석탄을 때는 구들을 놓아주시고 앞 쪽에는 석탄 화로를 만들어 주게나.

泥匠: 흙벽돌은 있습니까?

主人: 흙벽돌은 있는데, 지금 서둘러 석회와 삼거웃을 사러 가게나. 가래⁷⁶)와 팽이⁷⁷)를 가져다가 흙을 파서 여기에서 흙을 이기게나. 또한 두 지게 지어다가 삼거웃과 함께 고르게 섞게나. 자네는 저 끈을 가져다 담장에서 (구들이) 바르게 대었는지 대어보게나.⁷⁸)

土工: 끈을 뭘 곳이 없습니다.

主人: 저 높은 곳에 땅을 좀 파서 말뚝을 박고 줄을 매면 되지 않겠는가? 자네는 남쪽으로 문을 내고 서쪽에 아궁이를 만들게. 자네는 왜 구들 바닥에 회를 반반하게 문지르지 않았는가? 흙손을 가져다가 다시 반반하게 문지르게나. 밥값이 아깝지! (남들과) 똑같이 손을 움직여 일을 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면 품삯이 아깝지 않겠는가?

泥匠: 내참! 내가 여기저기서 일을 해 보았지만, 이렇게 세세히 따지는 양반을 여태 본적이 없었습니다.

主人: 무슨 말을 그리하시는가? 「拙匠人巧主人(일꾼보다는 주인의 정성이 다)」이라는 말이 있다네!⁷⁹)

76) 原文 '杓'은 흙을 뜨고 파는 데 쓰는 연장이다. 《훈민정음해례》에는 '꺄래(楸)'로, 《千一錄》에서는 '가내(可乃)'로, 《海東農書》에는 '협(杓)'으로 표기되었다. 끝에 쇠 날이 달려 있어 '넙가래', 넓적하다 하여 '넙가래'라고도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77) 原文 '鏹'는 '鎌刀', 즉 풀을 베는 '낫'을 말한다. 그러나 諺解는 '광이(팽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現代漢語에 있어 팽이는 '鋤(頭)'이다.

78) 原文의 '驗'은 '검사하다', '살피보다'의 의미를 가지다. '驗的正着'는 '정확하게 구들이 놓이고 있는 재바라'의 의미로 보았다. 언해는 '노호로다가 담 우희 견조기를 바로 흐라'이다.

79) 原文 '拙匠人巧主人'의 諺解는 '拙匠 匠人이오 巧匠 主人이니라'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중국 일부지역의 俗談에 '拙匠人, 巧主家'라는 말이 있다. '三分匠師, 七分主人'이라는 말도 같은 맥락의 것으로 보인다. '일꾼보다는 주인의 정성이다' 즉 세세한 지적과 是非야 말로 훌륭한 작품이 완성된다는 뜻이다. 다음의 글은 중국 [百度網]에서 찾을 수 있는 俗談 '拙匠人, 巧主家'를 인용한 <陽台大變身(베란다의 대변신)>이라는 제목을 가진 글이다. 「줄

第82話

我害⁸⁰)疥痒⁸¹)當不的, 你的長指甲饋我搯⁸²)一搯, 我不搯他, 滿指甲疙凜和膿水怎麼當? 我說與你, 撓⁸³)時廝刺⁸⁴)疼, 搯時聒殺人⁸⁵), 你饋我搯一遍兒, 我那幾日着⁸⁶)那小廝⁸⁷)搯來, 一會兒打頓⁸⁸), 着撓破了, 我罵他, 那廝⁸⁹)惶了, 又蟒⁹⁰)抓了一遍, 越疼的當不的, 你去更鼓樓⁹¹)北邊王舍⁹²)家裏, 買將一兩疥藥來

곧 내 자신의 공부방을 가지고 싶었다. 그곳에서 글을 읽고 글도 써보고 인터넷을 뒤지기도 하면서 잡담도 또는 멍 때리기도 하고 싶다. …… 칸을 막을 때는 시멘트와 벽들이 집안을 온통 공사장으로 만들어, 모든 집안의 가구들은 흙먼지를 두텁게 덮고 있었고 도저히 그 속에서 밥을 짓거나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우리 일가족은 별수 없이 친정집으로 피신했다. 난 날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로 일꾼들을 향해서 설 세 없이 종알거리며 그들에게 내 생각을 설명하였다. 이 때 나는 비로소 ‘拙匠人, 巧主家’라는 속담을 뼈 속 깊이 체험할 수가 있었고, 참으로 절묘한 비유라는 것을 느꼈다. (一直想擁有一間自己的書房, 在那裏, 可以讀讀書, 寫寫字, 上上網, 聊聊天, 或者幹脆發發呆. …… 砌地台時, 水泥、磚頭把整個家都變成了施工工地, 所有的家具上都蒙上了一層厚厚的灰, 沒辦法做飯、睡覺, 一家人只好暫時搬到我媽家裏, 我每天灰頭土臉地看着工人, 費嘴費舌地給他們講我的設計理念, 這時候我才深切體會到了那句俗話 — “拙匠人, 巧主家”講得真是精妙! (後略) (2009年06月, 山西新聞網, 三晉都市報 - 作者: 邵華)

- 80) 害: 生病, 患。《古今小說》第三六卷: 「候興一個兒子, 十來歲, 叫做胖哥, 發脾寒害在病床。」(許少峯 編, 《近代漢語大詞典》, 中華書局, 2008年, 頁714)
- 81) 疥痒: 猶疥癬。皮癬。
- 82) 搯: 同“掏”。挖取。
- 83) 撓: 搔, 輕輕抓。例: 撓痒。
- 84) 刺: 割開; 划開。
- 85) 殺人: 放在動詞後, 表示程度深。
- 86) 着: 教, 命。元·缺名《陳州糶米》四折: 「俺那勢劍如風快, 你死也應該, 誰着你金錠當酒來。」(許少峯 編, 同上揭書, 頁2452)
- 87) 小廝: 男孩, 兒童。元·白仁甫《牆頭馬上》: 「自離洛陽, 同小姐到長安七年也, 得了一雙兒女, 小廝叫做端端, 女兒喚做重陽。」(許少峯 主編, 《近代漢語詞典》, 團結出版社, 1997年, 頁1265) 【單字解】廝, 卑賤之稱。這廝, 이놈. 又相也。廝兒, 서르 보다. 又汎指人亦曰廝。小廝, 아히, 瞎廝, 쇼경.
- 88) 打頓: 應是“打盹”。打瞌睡。小睡。【夾註】頓, 『集韻』作“盹”, 朦朧欲睡之兒。打盹, 今俗語조으다.
- 89) 廝: 對人不尊敬, 輕視的稱號。“那廝們就是對‘歹人’的貶稱。
- 90) 蟒: 應是“莽”字。莽, 猛烈, 厲害。清·曹寅《滿江紅·烏喇江看雨》詞: 「好一場莽雨, 洗開沙磧。」(許少峯 編, 《近代漢語大詞典》, 中華書局, 2008年, 頁1242)
- 91) 更鼓樓: 鼓, 古同“鼓”。古代使用刻漏這樣的計時器來計時, 因為漏壺較為笨重和複雜, 要設置專門的更鼓樓來陣置和使用, 只是宮廷和官府才有。北京故宮的神武門就是紫禁城中的更鼓樓, 黃昏後鐘樓鳴鐘108聲然後起更。
- 92) 舍: 宋元時稱貴顯子弟為“舍人”, 也簡稱“舍”。《救風塵》一白: 「自家鄭州人氏, 周同知的孩兒周舍是也。」【夾註】王公大人之家必有舍人, 即家臣也。如本國伴僮之類, 為權勢倚任之人, 貧

搽⁹³)一遍, 便成疙滓都吊⁹⁴)了. 我不知道那家有甚麼慌字⁹⁵)? 那家門前兀子⁹⁶)上, 放着一個三隻脚鐵蝦蟆兒⁹⁷)便是. 買將些個來, 火盆裏弄些火, 撓破了疥瘡搽那藥, 火裏炙, 這般時便好了. 休尋海上方⁹⁸), 自有神仙藥.

【번역】

甲某: 내 피부에 옴이 옴아, 가려 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 자네의 긴 손톱으로 꼭꼭 눌러서 짜주시게.⁹⁹)

乙某: 내 그리하지는 않을 것이요, 손톱이 온통 진물과 고름일 것인데, 내 어찌하겠는가?

甲某: 내 말 좀 들어보게나, 박박 긁으면 엄청 쓰라리고,¹⁰⁰) 꼭꼭 누르면 무척이나 시원하다네! 자네가 한 번만 짜주게나! 내 지난번에 저 아이에게 눌러 달라고 하였더니 잠깐 조는 사이에 긁혀서 터져버렸는데, 내가 호통을 쳤더니 이놈이 놀래가지고 마구 긁어대는 바람에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네.

乙某: 자네는 更鼓樓(경고루) 북쪽에 사는 왕(王)씨네 집에 가서 옴에 바르는 약을 한 냙을 사다가, 한 번 바르면 즉시 딱지가 앉아서 떨어질

賤之所羨慕者, 故街巷呼親職爲張舍、李舍, 乃一時推敬之稱. 又《質問》云: 無職官下閑人爲之舍人.

93) 搽: 塗抹.

94) 吊: 通“掉”. 落下. 《老殘游記》「鴉雀無聲, 比皇帝出來還要靜悄得多呢, 連一根針吊在地上都聽得見響!」

95) 慌字: 應是“謊子”. 卽“幌子”. 店肆門首懸掛的標識. 【夾註】今按: 漢俗, 凡出賣諸物之家, 俱設標識之物, 置於門口, 或於門前起立牌榜, 如曰“張家出賣高麗布扇”, 一如賣酒家標植青簾之類, 俗呼青簾曰“酒家望子”.

96) 兀子: 矮板凳. 卽“杌子”. 《古今小說》第一卷: 「又哭了一會, 把個坐兀子填高, 將汗巾兜在梁上, 正欲自縊.」(許少峯 編, 《近代漢語大詞典》, 中華書局, 2008年, 頁1968)

97) 鐵蝦蟆兒: 【夾註】今按: 漢俗, 優人作戲時, 手執三脚蝦蟆入優場作戲. 問之, 則曰: 雄仙家畜養三脚蝦蟆, 俗人聞氣者必死. 然未詳源流. 『書言故事』云: 月宮蟾蜍三足, 是爲昇妻所化.

98) 海上方: 仙方. 因秦始皇、漢武帝均曾遣人赴海上求不死仙藥, 故稱仙方爲海上方. 鄭庭玉《看錢奴》第三折: 「則你那情狠身中病, 則你那心平便是海上方.」(許少峯 編, 《近代漢語大詞典》, 中華書局, 2008年, 頁712) 【夾註】唐崔元亮著『海上方』, 卽醫方也.

99) 原文 ‘搽는 ‘파내다’의 의미를 가지는데, 諺解는 ‘딛이다(눌러 짜다)’이다.

100) 原文 ‘廝刺疼’에 대한 구체적 의미는 알 수가 없다. 諺解는 ‘뜰알히고(쓰라리다)’이다.

걸세.

甲某: 난 그 집에 무슨 표지가 있는지 모르오.

乙某: 그 집 대문 앞에 작은 받침대 위에는 세 발 달린 쇠 두꺼비가 놓여있는 그곳이 바로 그 집이라네. 약을 좀 사다가 화로에 불을 좀 피우고, 상처를 굶어 터트린 다음 약을 바른 후 불을 쬐어 말리면 곧 나은 것이네. ‘海上方’의 명약이 따로 있나, 이것이 바로 仙藥이라네!

第83話

這七月十五日¹⁰¹)是諸佛解夏¹⁰²)之日, 慶壽寺¹⁰³)裏爲諸亡靈做孟蘭盆齋¹⁰⁴), 我也隨喜¹⁰⁵)去來. 那壇主¹⁰⁶)是高麗師傅¹⁰⁷), 青旋旋¹⁰⁸)圓頂, 白淨

101) 七月十五日: 『道藏經』云: 七月十五日, 謂之中元, 地官下降人間, 檢校世人, 甄別善惡, 上告天曹.

102) 解夏: 陰曆四月十五後, 雨季季來, 草虫活躍, 四處行走的修行人很容易踩到虫虫草草, 但出家人不殺生. 于是, 在雨季的90天裏和尚們一起生活, 一起打坐靜思. 三個月後夏天過去, 靜思有了實際的收穫. 那便是夏天的解脫, 卽“解夏”. (摘自《百度百科》) 【夾註】『荊楚歲時記』云: 天下僧尼, 於四月十五日, 就禪刹掛搭不出門, 謂之結夏, 亦曰結制. 蓋夏乃長養之節, 在外行則恐傷草木蟲類, 故九十日安居不出, 至七月十五日, 應禪寺掛搭僧尼, 盡皆散去, 謂之解夏, 又謂解制. 掛搭, 詳見『事林廣記』.

103) 慶壽寺: 金元舊名, 京中寺院, 明正統間御筆賜額“大興隆寺”. (楊棟, 元曲研究失落的兩部珍貴域外文獻——對《朴通事診解》與《老乞大診解》的幾點認識, 《山東科技大學學報》2000年, 第4期) 【夾註】『一統志』云: 在順天府西南, 內有飛虹, 飛渡二橋, 石刻六大字, 極道勁. 相傳三章宗所書. 又有金學士李晏碑文, 正統間重建, 賜額大興隆寺. 僧欽司在焉.

104) 孟蘭盆齋: 亦稱孟蘭盆齋、孟蘭盆會, 本是印度一種佛教儀式. 是每逢夏陰曆七月十五日佛教徒舉行的以供養三寶、超薦七世現世父母及歷代祖先、施食鬼神爲內容的佛教節日. 孟蘭盆, 梵文Ullambana的音譯, 意譯“救倒懸”, 比喻亡者之苦有如倒懸, 痛苦之極, 應卽往解救. 每年農曆七月十五日爲“孟蘭盆節”, 也稱“中元節”(一定意義上講, 中元節歸屬道教, 孟蘭盆節歸屬佛教), 有些地方俗稱“鬼節”、“施孤”, 又稱亡人節. 七月半, 俗傳去世的祖先七月初被閻王釋放半月, 故有七月初接祖, 七月半送祖習俗. 送祖時, 紙錢冥財燒得很多, 以便“祖先享用”. 【夾註】『大藏經』云: 大目犍連尊者, 以母生餓鬼中不得食, 佛令作孟蘭盆, 至七月十五日, 具百味五果, 置盆中, 拱養十方大德, 而後母乃得食. 『飢譯名義』云: 梵言孟蘭, 唐言救倒懸也.

105) 隨喜: 佛教語, 謂歡喜之意隨隨瞻拜佛像而生. 因用以稱游謁寺院. 元·王實甫《西廂記》第一本第一折: “隨喜了上方佛殿, 早來到下方僧院.”《醒世恒言·張淑兒巧智脫楊生》: “見寺宇整齊, 進來隨喜.”顧學頤, 校注: “本是佛教徒瞻拜佛像, 隨像發生歡喜心的意思; 一般當

淨¹⁰⁹)顏面，聰明智慧過人，唱念聲音壓衆，經律論¹¹⁰)皆通，真是一個有德行的和尚。說日連尊者¹¹¹)救母經，尼僧道俗，善男信女¹¹²)，不知其數。人人盡盤雙足¹¹³)，個個擎拳合掌¹¹⁴)，側耳聽聲。內中一個達達¹¹⁵)只管¹¹⁶)打呵欠，衆人看他的中間¹¹⁷)，一會兒倚着欄干頓睡，不知怎生¹¹⁸)滾在底下，吃了一跌，把鼻子跌破了。那講主¹¹⁹)見那達達跌破鼻子，叫將跟前來說道：「你聽我說與你，這佛法最尊最貴，不可不信。因你貪嗔痴三毒¹²⁰)不離于身，心只在酒肉氣色，不信佛法，不聽經論¹²¹)，因此上¹²²)見世報¹²³)，入寺敬三寶¹²⁴)，到家裏敬重父母，你如今

做參觀佛寺解釋。」

- 106) 壇主：祭壇的主人。【夾註】『翻譯名義』云：梵語漫荼羅，此云壇。謂主場說法者曰壇主。
- 107) 師傅：對僧道的尊稱。《古今小說·梁武帝累修歸極樂》：「離此間三十里，有個白鶴山，最是清幽仙境之所，朕去建造個寺刹，請師傅到那裏去住。」
- 108) 青旋旋：青光圓溜的樣子。《金瓶梅詞話》第八九回：「一個青旋旋光頭新剃，把麝香松子勻搽。」(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1529)
- 109) 白淨淨：白淨，瑩白光潔。《古今小說》第一卷：「你前夫陳大郎名字，可叫做陳商？可是白淨面皮，沒有須，左手長指甲的麼？」(許少峯 編，同前揭書，頁36)
- 110) 經律論：經律論就是三藏，經藏是佛親口宣說阿難復述的佛法，律藏是佛制定的戒律，論藏是僧人或菩薩對佛法的論述。
- 111) 目連尊者：『反譯名義』云：目連，婆羅門姓也，名拘律陀。又大經云：目犍連，即姓也，回姓立名目連。『事林廣記』云：佛書所謂王舍衛城，即賓童龍國也，國在西南海中，隸占城，占城選人作地主。目連，即此國人也。人云：目連舍基，至今猶存。
- 112) 善男信女：【夾註】『了義經』云：善者，順理也；信者，言是事如是也。佛法大海，信為能入，智為能度人，若無信，不入佛法。又善男善女釋見上。
- 113) 盤雙足：即「盤腿」。兩腿彎曲交壓的坐姿。
- 114) 擎拳合掌：拱手合十作禮。金·董解元《西廂記諸宮調》卷二：「階前僧行，一謎地向前哀告，擎拳合掌，要奴獻與賊盜。」【夾註】『翻譯名義』云：此方以拱手為恭，外國以合掌為敬。手本二邊，今合為一，表不散誕，專主一心。『西域記』云：致敬之式，其儀九等，四曰合掌平拱。
- 115) 達達：元、明時漢人對蒙古人的稱號。元·湯顯之《齋寒停》三折：「他道你是甚麼人？我道也不是回回人，也不是達達人，也不是漢兒人，我說與你聽者。」(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頁208)
- 116) 只管：老是，總是。明·葉憲祖《寒衣記》第二折：「你這個人只管在門首張張望望的，要做甚歹事麼？好好說明！」(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2399)
- 117) 中間：猶言之間或在……過程中。元·楊文奎《兒女團圓》第二折：「說話中間，可早來到門首也。」《二刻拍案驚奇》卷十：「飲酒中間，仲友曉得他善于詞咏。」
- 118) 怎生：為甚麼，因何。元·高文秀《灑池會》第二折：「想相如無汗馬之功，凭口舌而已，怎生封他偌大官職？」(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2330)
- 119) 講主：指升座講經說法的高僧。
- 120) 貪嗔痴三毒：佛教中的三毒。貪，是對於喜好的過分偏執。嗔，是對於討厭的過分偏執。痴，是根本的不明事理的實相而做出貪或者嗔的反應。【夾註】即三毒也。又曰三業。『大智論』云：有利益我者生貪欲，有違逆我者生嗔恚，不從智生，從枉惑生，是名為癡，為一切煩惱之根本。
- 121) 經論：佛教指三藏中的經藏與論藏。

誠心懺悔, 改往修來着。”道罷, 那達達聽師傅說, 便跳起來道: “怎的是佛法?” 罵了走出去了。師傅道: “一年一日解說戒法時, 他也不肯信向¹²⁵⁾, 這的¹²⁶⁾無緣衆生難化。”

【번역】

7월 15일은 스님들의 하안거(夏安居)가 끝나는 날, 경수사(慶壽寺)에서 여러 죽은 이들을 위하여 우란분재(盂蘭盆齋)¹²⁷⁾를 거행하여, 나도 구경삼아 잤다. 그곳의 단주(壇主)는 고려의 스님이었는데, 뽀뽀 깎아 푸른빛이 도는 머리에 새하얀 얼굴을 가졌고 충명과 지혜가 뛰어났으며, 염불소리는 사람들을 압도했고,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통달하시고 정말로 덕행이 뛰어난 스님이시

- 122) 上: 原因, 方面. 也作“上頭”. 或作“上起”. 徐本《陳搏高臥》四(步步高): 「命不快上遭逢着這火醉婆娘, 干誤了我晚夕參聖一爐香, 半夜裏觀乾象.」(劉堅 江藍生 主編, 《元語言詞典》, 上海教育出版社, 1998年, 頁278) 又元·無名氏《小孫屠》戲文第九出: 「後來因此閑言語上, 不會踏上它門.」《水滸傳》第四回: 「洒家不瞞你說, 因為你上, 就那日回到壯元橋下, 正遇着鄭屠那廝, 被洒家三拳打死了.」(高文達 主編, 《近代漢語詞典》, 知識出版社, 1992年, 頁687) 又元·朱凱《昊天塔》一折: 「他將我這尸骸恁般摩弄, 因此上向兒行一星星悲控.」(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990)
- 123) 見世報: 今世便得到惡報. 常用以罵沒出息, 不做好事的人. 《醒世姻緣傳》第二七回: 「見世報的老砍頭的! 做秀才時不怕天不怕地的, 做了官倒怕起人來了!」(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015)
- 124) 三寶: 佛教術語, 指佛、法、僧. 就是“佛寶(Buddha)”、“法寶(Dhama)”、“僧寶(Sangha)”. 【夾註】佛、法、僧也. 功成妙智, 道登圓覺, 佛也; 玄理幽微, 正教精誠, 法也; 禁戒守真, 威儀出俗, 僧也. 皆是四生導首, 六趣舟航, 故曰寶. 又『法數』云: 十號圓明, 萬行具足, 天龍戴仰, 稱無上尊, 即佛寶也; 一音演說, 普應群機, 究竟清淨, 名離欲尊, 即法寶也; 脫塵異俗, 圓頂方袍, 入聖超凡, 爲衆中尊, 即僧寶也.
- 125) 信向: 亦作“信鄉”. 亦作“信嚮”. 亦作“信響”. 信賴. 《漢書·韓延壽傳》: 「歷召郡中長老爲鄉里所信向者數十人, 設酒具食, 親與相對, 接以禮意.」
- 126) 這的: 這樣. 《懂西廂》卷六: 「這的般愁, 兀的般悶, 終做話兒說.」(龍潛庵 編著, 《宋元語言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5年, 頁461)
- 127) 우란분재(盂蘭盆齋)는 불교에서 사후에 고통 받고 있는 자를 위해서 음력 7월 15일에 음식을 공양하는 의식이다. 동아시아 불교 문화권에서 우란분재는 오랜 역사를 지닌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우란분(盂蘭盆)은 ‘심한 고통’이란 뜻을 가진 범어 ‘울람바나(ullambana)’의 음을 취해 만든 한자어이다. 죄를 짓고 지옥에서 거꾸로 매달려 고통 받는 조상들의 혼백을 구해 주고 풀어낸다는 뜻에서, 해도현(解倒懸)·구도현(救倒懸)이라고 번역한다. 또한 지옥에 갇혔던 혼백을 부처님께 기도하여 풀려나게 한다고 해서 백종(魄縱)이라고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우란분재 [盂蘭盆齋] (한국전통문화사전, 2014. 12. 15. 민속원)

다.128)

목련존자구모경(目連尊者救母經)¹²⁹을 설법하시는데, 승려들은 물론이고 설법을 들으려는 사람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사람들은 모두 다리를 접고 앉아서 두 손을 모아 합장한 채 귀를 기울여 설법을 듣는다. 설법도중에 한 타타르¹³⁰가 잇달아 자꾸 하품을 하자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았다. 잠시 난간에 기대여 조는가 싶더니 어찌된 영문인지 바닥으로 고꾸라져서 코가 깨졌다. 講主¹³¹가 그 타타르 사람이 고꾸라져 코가 깨진 광경을 보시고는 앞으로 불러내서 “내말을 잘 들으시오. 부처님의 가르침¹³²은 가장 존귀한 말씀으로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탐욕과 노여움 그리고 어리석음의 세 가지 번뇌를¹³³ 떨쳐내시지 못하고, 마음은 오로지 주색에만 빠져서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이에 지금의 業報를 받는 것입니다. 절에 들어서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말씀 그리고 스님들, 즉 三寶를 공경해야하고, 집에서는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오늘부터 성심으로

128) 原文 ‘經律論’의 ‘經’은 부처님이 말씀한 교법(敎法)을 말함이고, ‘律’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規則), ‘論’은 부처님의 교리(敎理)를 설명한 經典을 말함이다. 이에 통틀어 부처님의 말씀으로 번역하였다.

129) ‘目連經’, ‘대목건련경(大目犍連經)’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효도의 경전으로 널리 독송되었다. 송나라 때 법천삼장(法天三藏)이 한역(漢譯)했다고 하나, 『우란분경(盂蘭盆經)』을 원본으로 대목건련의 효행에 다른 불제자의 효행을 더해서 만든 위경(僞經)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목련경(目連經)』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십대제자 중 신통제일로 알려진 목련(목건련) 존자의 지옥순례기이다.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부처님에게 애원하면서 어머니의 구제를 부탁하였다. 부처님은 도력으로 무거운 고통을 받는 지옥에서 차차 가벼운 지옥으로 나오게 하고, 다시 몇 번의 도력을 베풀어 나중에는 아귀의 몸을 받았다가 다시 개의 몸을 받게 하였다. 부처님의 도력으로 개의 몸이 된 어머니를 보면서 목련 존자는 개의 몸을 해탈하도록 발원하였다. 이에 부처님은 7월 15일 우란분절에 대중에게 공양을 올리면 정도에 태어날 것이라고 하여 목련 존자는 그날 정성껏 공양을 올렸다. 마침내 어머니는 도리천궁에 태어나서 온갖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등에서 발췌 정리)

130) 原文의 ‘達達’는 ‘韃靼(타타르)’로, 당시에 몽골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131) 原文 ‘講主’는 ‘경스승’이라고도 하고, 경문의 뜻을 풀어 가르치는 법사를 말함이다.

132) 原文 ‘佛法’은 「① 부처의 가르침. ② 부처가 깨달은 진리. ③ 부처가 갖추고 있는 뛰어난 능력. 부처만이 갖추고 있는 특징.」등을 말함이다. (시공 불교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133) 原文 ‘貪瞋癡三毒’은 불교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세 가지 번뇌를 말함이다. 탐욕(貪慾)·진에(瞋恚)·우치(愚癡)를 의미한다. 줄여서 탐·진·치라고도 하며, 이 세 가지 번뇌가 중생을 해롭게 하는 것이 마치 독약과 같다고 하여 삼독이라고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네이버 지식백과)

참회하시여 지난 일들을 반성하시고 수양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시었다. 그 타타르는 스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벌떡 일어나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며 “무슨 놈이 부처님의 말씀이야!”라고 욕지거리를 하며 나가버렸다. 스님은 “일 년에 하루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날에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이렇게 불가와 인연이 없는 衆生¹³⁴⁾은 教化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셨다.

第84話

這幾日我家裏有人去, 先生你寫與我書稍¹³⁵⁾的去. 我寫了¹³⁶⁾也¹³⁷⁾, 你聽我念: “愚男山童, 頓首拜上父親母親尊侍前¹³⁸⁾, 玉體安樂好麼? 孩兒在都, 托着爺¹³⁹⁾娘福蔭¹⁴⁰⁾裏, 身已¹⁴¹⁾安樂, 不須憂念. 孩兒拜別之後, 想念之心無日有忘? 前者姐夫去時, 稍一個水褐斷匹¹⁴²⁾與父親用來, 之後, 未見回書, 不知得否? 有人來時, 望稍書來着. 孩兒今將金色茶褐¹⁴³⁾段子¹⁴⁴⁾一個, 藍長綾¹⁴⁵⁾一個, 各

134) 原文 ‘衆生’은 부처의 구제 대상이 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를 말함이다.

135) 稍: 附帶. “稍”通“捎”. 順便帶. 元·關漢卿《救風塵》第二折: “我這隔壁有個王貨郎, 他如今去汴梁做賣買, 我寫一封信稍將去, 着俺母親和趙家姐姐來救我.”(許少峯 編, 《近代漢語大詞典》, 中華書局, 2008年, 頁1465)

136) 了: 完畢, 完成.

137) 也: 表示肯定的語氣助詞, 類似現代漢語的“啊”、“呀”、“哦”. 與文言之助詞“也”不同.

138) 尊侍前: 應是“尊前”之誤寫. 尊前, 尊長之前. 書信中的敬詞.

139) 爺: 此作“父親”. 元·缺名《凍蘇秦》第二折: “當街裏劬劬恁炒戚, 親爺親娘我也不認得.”(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181)

140) 福蔭: 依賴有福分者的庇護. 《金瓶梅詞話》第二三回: “小人托賴相公的福蔭, 偶然僥倖, 打死了這個大虫, 非小人之能.”(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589)

141) 身已: 金, 元人稱身體為“身己”; 又作身起, 身奇(呼如記), 身肌, 音近義並同. 《劉知遠諸宮調》二(般涉調·沁園春): “撲翻身己, 權時歇待.”(顧學頤 王學奇, 《元曲釋詞》卷三, 中國社會科學出版社, 頁317)

142) 斷匹: “緞匹”之誤寫. “緞匹”, 緞的總稱, 亦泛指絲織品.

143) 茶褐: 像濃茶水那樣的深褐色.

144) 段子: 緞子. 《水滸傳》二回: “史進并太公苦留不住, 只得安排一個宴席送行, 托出一盤兩個段子, 一百兩花銀謝師.”(吳士勛 王東明 主編, 《宋元明清百部小說詞語大辭典》, 陝西教育出版社, 1992年, 頁262)

145) 綾: 即“綾子”. 一種很薄的絲織品, 細薄而有花紋, 一面光, 像緞子.

俱壹裏，與兄弟佛童將去父親母親穿用。孩兒這裏所幹已成完備，得了照會¹⁴⁶⁾，待兩個月，衣錦還鄉，喜面相參¹⁴⁷⁾，孝順父母，光顯門閭¹⁴⁸⁾，只此已外，別無所懷。如書到日，勝如見面。比及¹⁴⁹⁾孩兒相會¹⁵⁰⁾，善保尊顏。不宣¹⁵¹⁾。某年秋季月¹⁵²⁾十有五日，愚男山童頓首百拜。”¹⁵³⁾饋你筆，畫個字。

【번역】

山童: 며칠 내로 우리 집에 갈 사람이 있어, 선생께서 저에게 편지를 써주시면 가는 인편으로 부칠까 합니다.

先生: 내 다 썼네! 내가 읽을 것이니 들어보게나.

못난 아들 山童은 부모님 전에 삼가 큰절을 올리며 글을 드립니다.¹⁵⁴⁾

玉體 康寧하십니까? 小子는 大都에서 부모님의 덕택으로 편안하오니 염려하시지 마세요. 小子는 부모님 곁을 떠나온 후부터 그리운 마음이 떠난 날이 없었습니다. 지난번 매형 편에 물 갈색(水褐)¹⁵⁵⁾ 비단

146) 照會: 通知, 通報. 元·石子章《竹塢聽琴》第三折:「昨日照會來說, 有一個新官下馬, 差人接去了。」(許少峯 編, 《近代漢語大詞典》, 中華書局, 2008年, 頁2360) 【夾註】

147) 參: 進謁, 晉見.

148) 門閭: 此作家門; 家庭; 門庭.

149) 比及: 及至, 等到. 《京本通俗小說·馮玉梅團圓》:「比及到家, 那漢還站在門首, 依依不去。」(龍潛庵 編著, 同前揭書, 頁107)

150) 相會: 相見; 會面.

151) 不宣: 謂不一一細說. 舊時書信末尾常用此語. 《金瓶梅詞話》第十七回:「相煩親家費心處料, 容當叩報, 沒齒不忘. 燈下草草. 不宣。」

152) 季月: 指每季的最後一月, 即農曆三、六、九、十二月.

153) 澆: 染上, 浸漬. 《清平山堂話本》:「姚卜佛開玉版紙, 澆飽紫毫筆, 長揖一聲, 下筆便寫。」

154) 原文 '尊侍前'은 '尊前'의 誤寫로 보았다. 본문의 내용은 자식이 부모에게 안부를 전하는 내용이므로, '父親母親尊前이 맞다. '尊侍'에 대해 《새우리말사전》(삼성출판사, 1983년)에서는 '웃어른과 나이 어린 사람. 존장(尊長)과 시생(侍生)'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155) 原文의 '茶褐'은 색상의 명칭으로 소위 말하는 '다갈색'인 것이다. 元末明初의 사람인 陶宗儀가 지은 《南村輟耕錄》(卷十一)에 갈색계통의 다양한 색조의 이름(磚褐·荊褐·艾褐·鷹背褐·銀褐·珠子褐·藕絲褐·露褐·茶褐·麝香褐·檀褐·山谷褐·枯竹褐·湖水褐·葱白褐·棠梨褐·秋茶褐·鼠白褐·丁香褐)을 나열하고 있음을 볼 때, 당시의 服飾에 갈색계통의 색조가 많이 쓰이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을 아버님 쓰시라고 보내드렸는데, 그 후로 답장이 없어 잘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는 편이 있다면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小子가 오를 금빛 주황색(金色茶褐) 비단 한 필과 남색능(綾)¹⁵⁶ 한 필을 각각 안감¹⁵⁷을 갖추어 아우 佛童이 편에 보내 드리니 아버님 어머님께서 옷을 지어 입으십시오. 소자는 이곳에서 맡은 바의 일을 모두 마치고, 照會(조회)도 받았습니다. 두 달 후 금의환향하여 기쁜 얼굴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부모님께 효도하여 가문을 빛낼 것입니다. 소자는 이 밖에는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서찰이 무사히 도착될 수만 있다면 그 기쁜은 얼굴을 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소자가 돌아가 뵈는 날까지 존체 강녕하십시오. 이만 줄입니다.

아무 해 9월 15일 愚男 山童 삼가 절을 올립니다.

붓에다 먹물을 묻혀 줄 것이니, 이름을 써 넣게나!

第85話

我要蓋一座書房，木匠你來咱商量，相公¹⁵⁸支分¹⁵⁹怎的蓋？捲篷¹⁶⁰樣做。

156) 原文 '綾'은 비단의 한 종류로 사전에서는 '단(緞)과 비슷하나 그보다 더 얇음'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비단의 종류는 금(錦), 능(綾), 단(緞), 羅(나) 등의 몇 가지가 있다. [네이버 백과 - 비단의 특성]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볼 수 있다: 「여러 종류의 문양(文樣)을 다양하게 섞어, 지문(地紋)을 짠 견직물로, 얼음의 결과 같은 무늬가 있는 비단이다. 이 능은 주로 궁중 서화용(書畫用)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중국에서는 이 직물을 포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중록(閑中錄)』에 "사도세자(思悼世子)가 용꿈을 꾸고서 '백능 일폭(白綾一幅)'에 흑룡(黑龍)을 그려서 벽상에 붙였다"라는 기록이 전한다. 금(錦)보다는 얇고 부드러운 궁중의상 중 가볍고 부드러운 속옷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문화재를 위한 보존 방법론, 2008년, 경인문화사)」

157) 原文 '壹裏' 또는 '一裏'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 없다. '各俱壹裏'에 대해 '각각 한 안홀 2초와(각각 안감 한 벌을 갖추다)라는 諺解의 설명을 볼 수 있다. 옷의 겹감과 안감을 나타내는 어휘 '表裏'가 있다. 앞의 제72화에서 「上位賞了一百錠鈔，兩表裏段子(황제께서는 상으로 백 정(錠)과 비단 두 벌을 하사하시었네.)」에서 '兩表裏'라는 어휘를 볼 수 있다. 달리기 대회에서 1등을 한 사람에게 상으로 겹감과 안감을 갖춘 두 벌의 옷감을 하사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壹裏'는 '一表裏'의 준말로 보았다.

木植¹⁶¹)都有麼? 檁¹⁶²)、樑¹⁶³)、椽¹⁶⁴)、柱¹⁶⁵)、短柱、叉豎、門框¹⁶⁶)、門扇¹⁶⁷)、吊窗¹⁶⁸)、天窗¹⁶⁹)、雙扇¹⁷⁰)、單扇、窗櫺¹⁷¹)，以至¹⁷²)升斗¹⁷³)、石、磚、培瓦¹⁷⁴)都有。你只去將墨斗¹⁷⁵)、墨筏¹⁷⁶)、和鎊¹⁷⁷)、鑿子¹⁷⁸)、退鉋¹⁷⁹)、鑿子、斧子、銼子來做生活¹⁸⁰)。我慢慢的旋¹⁸¹)指分¹⁸²)。蓋了¹⁸³)這房

158) 相公：對當官人或有一定身份的人的尊稱。

159) 支分：安排，支撥。《警世通言》第二二卷：「陳三郎正在店中支分解匠鋸木，那人道：三郎，我引個主顧作成你。」（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2387）

160) 捲篷：應是「卷棚」。卷棚，一種建築樣式，房頂中間不起脊，呈弧線形。也指這種樣式的建築。《金瓶梅》第十九：「西門慶留在卷棚內，管待二人酒飯。」（白維國 編，《金瓶梅詞典》，中華書局，1991年，頁285）也作「卷棚頂」。卷棚頂，即卷棚式屋頂，又稱元寶頂，是古代漢族建築的一種屋頂樣式。為雙坡屋頂，兩坡相交處不作大脊，由瓦壘直接卷過屋面成弧形的曲面。券棚頂整體外貌與硬山、懸山一樣，唯一的區別是沒有明顯的正脊，屋面前坡與脊部呈弧形滾向後坡，頗具一種曲線所獨有的陰柔之美。（摘自 百度）

161) 木植：木料，木頭。《元典章·吏部六》：「其燒不盡木植已是不堪架造。」（劉堅、江藍生 主編，《元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8年，頁202）【夾註】亦曰「木料」。남그로 성녕홀 마음이니，詳見『字解』下。

162) 檁：用于架跨在房梁上起托住椽子或屋面板作用的小梁，亦稱「桁」。

163) 樑：建築物的橫樑。

164) 椽：放在檁上架着屋頂的木條。

165) 柱：建築物中直立的起支撐作用的構件。即「柱子」。

166) 門框：門扇四周固定在牆上的框子。

167) 門扇：指「門」。

168) 吊窗：可以從外面向上吊起來的舊式窗子。

169) 天窗：設在屋頂上用以透光和通風的窗子。

170) 雙扇：指門扉，即「雙扇門」。

171) 窗櫺：窗櫺即窗格（窗裏面的橫的或豎的格）。

172) 以至：直至，一直到。《紅樓夢》第四七回：「他說甚麼，從你小嬌和你息婦起，以至家下大大小小，沒有不信的。」（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2224）

173) 升斗：容量單位。十合為升，十升為斗。

174) 培瓦：培，應是「坯（坏）」，坯，沒有燒過的陶器、磚瓦。培瓦，即是「坯瓦」，亦作「瓦坯」。未燒的瓦。

175) 墨斗：木工畫直線的工具。

176) 墨筏：筏，《類篇》：「墨漬筆也。」

177) 鎊：《玉篇》：削也。

178) 鑿子：削平木料的工具。柄與刀具相垂直呈丁字型，刀具扁而寬。

179) 退鉋：鉋，同「刨」字。刨子，推刮木料等使平滑的工具。退鉋，疑是「推刨」，「推刨」，也作「平推刨」、「大推刨」等等。

180) 生活：工作，活計。元·缺名《獨角牛》第一折：「不知怎麼，這孩兒不肯做莊農生活，則待要刺槍弄棒，學拳棒交。」（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1667）

181) 旋：漸次，逐漸。宋·周密《齊天樂》詞：「東風千樹易老，怕紅顏旋減，芳意偷變。」（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2112）

182) 指分：指派，分派。《二刻白雲驚奇》第十卷：「我家初喪之際，必有奸人動火，要來挑釁，扎

子. 那西壁廂¹⁸⁴)打一溜¹⁸⁵)兒短牆, 上面畫六鶴舞琴¹⁸⁶). 前面壘一個花台兒, 栽些好名花, 臨¹⁸⁷)窗看畫亦看花. 相公道的正好! 正好! 別¹⁸⁸)要蓋甚麼房子? 不要蓋, 盡勾也. 常言道: “能蓋萬間房, 夜眠一廈間.”

【번역】

- 甲某: 내가 서재를 하나를 지으려고 하는데, 木手인 자네와 상의를 좀 해야겠네!
- 木匠: 나리께서는 어떻게 지을 것인지 분부만 내리시지요!
- 甲某: 용마루가 없는 무량각(無樑閣)양식¹⁸⁹)으로 지어야겠네.
- 木匠: 목재는 다 있습니까?
- 甲某: 도리(櫨)¹⁹⁰), 대들보(樑), 서까래(椽)¹⁹¹), 기둥(柱), 짧은 기둥(短

成火圍. 落了他們圍套, 這人家不經拆的, 只依我指分, 方免禍患.»(許少峯 編, 《近代漢語大詞典》, 中華書局, 2008年, 頁2400)

- 183) 了: 完畢, 完成. 《武王伐紂平話》上卷: 「姜皇后傳令, 來日去玉女觀行香, 冬令香湯沐浴了, 安排玉輦來, 念天子去與否.»(許少峯 編, 《近代漢語大詞典》, 中華書局, 2008年, 頁1158)
- 184) 壁廂: 壁, 邊也. 又作“壁廂”、“邊廂”等.
- 185) 一溜: 應是“一溜”. 一排, 一長行. 《紅樓夢》第二五回: 「只見寶玉左邊邊上起了一溜燎泡, 幸而沒傷眼睛.»《兒女英雄傳》第二四回: 「姑娘隔着車玻璃一看, 只見那座小廟一溜約莫是五間.»
- 186) 六鶴舞琴: 【夾註】『史記: 師曠授琴以鼓, 一奏之, 有玄鶴二八集于廊門, 再奏之, 延頸而鳴, 舒翼而舞. 『善惡應報錄』云: 江夏郡辛氏沽酒爲業, 有一先生入坐曰: “有好酒飲吾否?” 辛飲以巨杯, 明日復來, 如此半載. 謂辛曰: “多負酒債, 無錢酬汝.” 遂取藍橘皮, 於壁上畫鶴, 曰: “客來飲酒, 但令拍手歌之, 其鶴必舞, 將此酬汝.” 後客至, 如其言, 鶴果舞, 觀者沓至, 醜之以錢, 遂致富富.
- 187) 臨: 靠, 瀕.
- 188) 別: 再, 另. 《醒世恒言》第三七卷: 「眼見得這座祖宅, 還值數萬銀子, 怎麼又要舍作道院? 別來募化黃金, 興鑄山象.»(許少峯 編, 《近代漢語大詞典》, 中華書局, 2008年, 頁113)
- 189) 原文 “捲篷”은 ‘卷棚’ 또는 ‘捲棚’이 맞다. 諺解는 ‘무량각’이다. ‘무량각’은 ‘용마루가 없는 집’이라는 사진의 설명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식은 원나라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후 중국에서 주로 정원의 건물이나, 사당의 양식으로 유행하다가 우리나라에는 조선 시기 궁궐의 지붕양식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은 글이다: 「중국의 건축용어로, 헐산(歙山)이나 현산(懸山)·경산(硬山)의 지붕 콘 용마루에 기와를 얹지 않고 그냥 밋밋하게 곡면으로 해서 앞뒤의 지붕면을 잇는 형식을 말한다. 또 지붕 양끝에 수척(垂脊)을 붙인 것은 말안장과 닮았다고 해서 안자척(鞍子脊)이라 부른다. 포하(抱廈)와 같은 부속건축이나 별서(別墅)·이궁(離宮)과 같은 비의례적인 건축에서 흔히 보인다. (미술대사전-용어편)」

柱), 작사리(叉竪)¹⁹², 문틀(門框), 문짝(門扇), 들창(吊窗)¹⁹³, 천창(天窗)¹⁹⁴, 쌍 미단이(雙扇), 외미단이(單扇), 문살(窗櫺)에서부터 되와 말(升斗), 돌(石), 벽돌(磚), 날기와(坯瓦)¹⁹⁵까지 모두 다 있으니, 자네는 먹통(墨斗), 먹갈(墨筏)¹⁹⁶, 까뀌(和鎊)¹⁹⁷, 자귀(鑿子)¹⁹⁸, 대패(推刨)¹⁹⁹, 끌(鑿子), 도끼(斧子), 줄(銼子) 등을 가져다가 작업을 하게나. 난 천천히 점차적으로 지시를 하겠네. 이 서재를 다 짓고나면, 저 서쪽에 길게 낮은 담을 쌓고, 벽면에는 육학무금(六鶴舞琴)의 그림을 그려야겠네. 앞쪽에는 화단(花壇)을 쌓아 예쁜 꽃들을 심어놓고, 창가에서 글도 읽고 꽃구경도 할 것이네!

木匠: 나리의 말씀이 참으로 맞습니다! 다른 또 건물도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某甲: 짓지 않겠네, 이만하면 충분하네! 옛말에 ‘能蓋萬間房, 夜眠一廈間. (방 만 칸을 지을 수 있어도, 잠을 자는 방은 한 칸이다)’라고 했네!²⁰⁰

190) 도리(櫨)는 서까래를 받치기 위하여 기둥 위에 건너지르는 나무를 말한다.

191) 서까래(椽)는 마룻대에서 도리 또는 보에 걸쳐 지른 나무다.

192) 原文 ‘叉竪’의 諺解는 ‘작슈’다. 《李朝語辭典》에서 ‘작슈’는 ‘작사리’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작사리’는 ‘한끝을 엮걸어서 동여맨 작대기. 무엇을 걸거나 받치는 데 쓴다.’라는 사전의 설명을 볼 수 있다.

193) ‘들창’은 창문 중에서도 밖으로 밀어 올려서 고정시키도록 된 창문이다.

194) 原文 ‘天窗’의 언해는 ‘올어리창’이다. ‘올어리창’은 ‘지붕에 낸 창’의 옛말이다.

195) 原文 ‘坯瓦’는 앞의 註 174)번에서의 설명처럼, ‘坯瓦’가 맞다. ‘坯瓦’는 굽지 않은 ‘날기와’를 말함이다.

196) 原文 ‘墨筏’은 ‘먹갈’이다. 먹을 찍어 목재나 석재 따위에 표를 하거나 글씨를 쓰는 기구이다.

197) 原文 ‘和鎊’은 무엇을 말함인지 알 수가 없다. 諺解는 ‘갓괴’이다. ‘갓괴’는 ‘까뀌(한 손으로 나무를 찍어 깎는 연장. 날이 가로로 나 있어 자루와 직각으로 되어 있고, 자귀보다 크기가 작다)’의 옛 말이다.

198) 原文 ‘鑿子’의 諺解는 ‘항괴’다. ‘항괴’는 ‘자귀(나무를 깎아 다듬는 연장의 하나)’의 옛 이름이다.

199) 原文 ‘退刨’의 언해는 ‘대패(대패)’다. 중국어에는 대패는 ‘鉋子’이고, 종류에 따라 ‘手推鉋’, ‘平推鉋子’ 등의 명칭을 볼 수 있다.

200) 原文 ‘能蓋萬間房, 夜眠一廈間’의 出典은 알 수가 없다. 《增廣賢文》一書에 ‘良田萬頃, 日食一升; 廣廈千間, 夜眠八尺(만경의 땅이 있어도, 하루에 쌀 한 되면 충분하고; 천 칸의 넓은 방이 있어도 잠자는 곳은 여덟 자면 족하다)’이라는 글을 볼 수 있다.

第86話

你官人除²⁰¹做那裏？除做光祿寺卿²⁰²。咳，這的除甚麼好？除好清高。做了第幾位？第二少卿²⁰³。這衙門更是²⁰⁴好湯食²⁰⁵。可知²⁰⁶每日兩個羊爲頭兒²⁰⁷，軟肉薄餅²⁰⁸吃了，又吃幾盞酒之後，吃稍麥²⁰⁹、粉湯，却²¹⁰喫棋子²¹¹，或是淡粥，後頭²¹²擺茶飯²¹³，又吃一會²¹⁴兒酒，擡了桌子，纔只掾

- 201) 除：拜受官位。文天祥《指南錄後序》：「予除右丞相兼樞密使，都督諸路軍馬。」
- 202) 光祿寺卿：掌宮廷宿衛及侍從，北齊以後兼掌膳食帳幕，唐以後始專司膳，歷代因之。光祿寺，卿、少卿、丞、主簿各一人。（摘自 百度）
- 203) 少卿：少卿爲明清朝官制之一。通常爲光祿寺、太仆寺等輔助部門的從官，品等約在正四品至正五品之間。光祿寺一般設有，卿一人，從三品；少卿二人，從四品上；丞二人，從六品上；主簿二人，從七品上。
- 204) 更是：更加。關漢卿《救風塵》：「我更是不待饒人，我爲甚不敢明問？肋底下插柴自忍。」（藍立冀 編編，《關漢卿戲曲詞典》，四川人民出版社，1993年，頁92）
- 205) 湯食：應是「堂食」。顧學頌、王學奇，《元曲釋詞》卷三：「唐代，宰相辦公處叫政事堂，宰相的公膳，稱爲堂食，或堂殮、堂饌。後來對一般官員的宴會，也稱堂食。」（中國社會科學出版社，頁1988）公家所供的膳食。關漢卿《單刀會》第二折：「大夫也，我可也無福吃你那堂食玉酒，我則待溪山學許由。」（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1807）
- 206) 可知：自然；當然。《水滸傳》22回：「我可知要見他哩。」（吳士助 王東明 主編，《宋元明清百部小說詞語大辭典》，陝西教育出版社，1992年，頁557）
- 207) 爲頭兒：從頭，開頭。《三國志平話》上卷：「當日起軍，從揚州廣寧郡爲頭，逢一村，收一村；逢一縣，收一縣。收訖州府不知其數。」（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1926）
- 208) 軟肉薄餅：【夾註】『質問』云：以麥麵作成薄餅片，而用熨軟肉捲而食之。
- 209) 稍麥：又稱燒賣、宵米、稍梅、鬼蓬頭。是形容頂端蓬鬆的形狀，是一一以燙麵爲皮帶餡上籠蒸熟的麵食。燒賣源起元大都，現在中國北京、山西、廣東、山東、江蘇、浙江等地均有分布。【夾註】『質問』云：以麥麵作成薄片，包肉蒸熟，與湯食之，方言謂之「稍麥」。麥，亦作「賣」。又云：皮薄內實，切碎肉，當頂撮細，似線稍繫，故曰稍麥。又云：以麵作皮，以肉爲餡，當頂作爲花蕊，方言謂之「稍麥」。
- 210) 却：又；還。《西廂記》三本二折〔朝天子〕白：「你把這個餓鬼弄得他七死八活，却要怎麼？」（劉堅、江藍生 主編，《元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8年，頁256）
- 211) 棋子：“棋子”，應是“棋”。“棋”字本借用“棋”，也作“食其”。棋子，像如棋的食品。宋·孟元老《東京夢華錄·食店》：「大凡食店，大者謂之「分茶」，則有頭羹……桐皮麵、薑潑刀、回刀、冷淘、棋子、寄爐飯飯之類。」（《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棋子，一種乾糧，形狀像棋子。《金瓶梅》七一回：「西門慶行囊中帶得乾鷄臘肉果餅棋子之類，晚夕與何千戶胡亂食得一頓。」（白維國 編，《金瓶梅詞典》，中華書局，1991，頁403）
- 212) 後頭：（1）後面。元·李文蔚《圯橋進履》第三折：「師父略籌片時，後頭軍馬來也。」（2）此後，以後。《紅樓夢》第八六回：「把頭伸過來叫大爺打。大爺拿起酒碗就砸他的腦袋，一下子就冒了血了，躺在地下，頭裏還罵，後頭就不言語了。」（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758）按，此作“此後，以後解。

吏²¹⁵)們將文卷²¹⁶)來,紫羅書案上展開,啓稟²¹⁷)公事²¹⁸),頭到²¹⁹)發落²²⁰)公事,直到日平西²²¹)纔上馬,那般散²²²)了時,便到家裏那怎的²²³)?時常這般早聚晚散麼?但早散時,實不見早回家,繞地裏²²⁴)望²²⁵)官人,直是人定²²⁶)時分²²⁷)纔下馬,那般時,你伴當們,其實受苦,罷,罷,跟官人時休撒懶²²⁸),一發²²⁹)用心上緊²³⁰)着,我也跟官人時節,那裏²³¹)問²³²)雪雨陰晴,忍多少饑,受

213) 茶飯:宋元時期把茶稱爲茶。《東京夢華錄》:「凡店內賣下酒,廚子謂之茶飯。」茶飯,這裏泛指普通進餐的茶和飯,也指筵席。《孝經直解》十八:「孝子沒了父母時分……吃茶飯呵不美,阿的便是他煩惱的情分。三日後素要吃些茶飯。」(劉堅 江藍生 主編,《元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8年,頁39)

214) 一會:指短暫的時間,亦作“一回”“一忽”“一會兒”“一會價”等。

215) 掾吏:官府中佐助官吏的通稱。明·許自昌《水滸記·邂逅》:「小生姓張,行三,與宋公明哥哥同爲掾吏。」【夾註】今按:五軍都督府有掾吏而光祿寺吏無此名。元制未詳。

216) 文券:此作“公文案卷”。《全元散曲·小令·紅錦袍》:「那老子彭澤縣懶坐衙,倦將文卷押。」

217) 啓稟:啓奏,稟告。

218) 公事:訟事,案件。元·李文蔚《燕青博魚》第三折:「誰着這芭蕉叶紙扇翻合着酒,誰道這梨花樣磁鉢倒暗着燈。這公事要辯個分明。」

219) 頭到:及至,等到。元·李文蔚《圯橋進履》第三折:「頭到去上陣厮杀,壓的他大叫高聲。」(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1866)

220) 發落:處理;處置。《京本通俗小說·菩薩蠻》:「明日分付臨安府,量輕發落。」

221) 平西:太陽在西方將落。《紅樓夢》第一百十回:「看那時候已經日漸平西了。」

222) 散:就是“散衙”。衙門公事完畢退堂。《金瓶梅詞話》第七十回:「于是又展開工部工完的本觀看,上面寫道……夏提刑與西門慶看畢,各散衙回家。」(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1613)

223) 怎的:幹甚麼,詢問原因或目的。《認字記》一[金盞兒]白:「這個窮弟子孩兒,要錢則要錢,題名道姓怎的!」(劉堅、江藍生 主編,《元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8年,頁411)

224) 繞地裏:到處。《金瓶梅》二八回:「原來是你偷拿了我的鞋去了,教我打着丫頭繞地裏尋。」(白維國 編,《金瓶梅詞典》,中華書局,1991年,頁432)

225) 望:造訪,探望。《金瓶梅詞話》第七八回:「那平安經過一遭,那裏再敢離了左右,只在門首坐的,但有人客來望。」(許少峯 編,同前揭書,頁1921)

226) 人定:指夜深人靜的時候。《玉台新詠·古詩爲焦仲卿妻作》:「奄奄黃昏後,寂寂人定初。」

227) 時分:時候,正其時。

228) 撒懶:偷懶。

229) 一發:此作“越發”,有更的意思。《水滸傳》第二回:「你伯伯一發古慙了,教我不要與鄆團來往。」亦作“亦發”,如《金瓶梅》第六八回:「這西門慶聽了,見粉頭所事,合着他的板眼,亦發歡喜。」義並同。字又作“一法”“益發”“越法”,蓋皆一聲之轉。(王學奇、王靜竹 撰著,《宋金元明清曲辭通釋》,語文出版社,2002年,頁1275)

230) 上緊:加緊,盡力。《古今小說》第四十卷:「奴家且不去稟官,容你查訪,只是你們自家要上緊用心。」(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1638)

231) 那裏:與現代漢語“哪裏”同,有“怎麼”,“如何”之意,但比之“怎麼”語氣却強。元·石德玉《秋胡戲妻》第二折:「多謝親家,我那裏吃得這酒!」

232) 問:管,顧。無名氏《秋景》【水仙子過折掛令】:「正撞着客侶中三秋暮景,天涯千里途程,

多少渴, 這般受苦來. 今日個日頭, 官人們的要路²³³裏到了也. 古人道: 苦盡甘來.

【번역】

甲某: 자네 나리는 무슨 벼슬을 제수(除授) 받으셨는가?

乙某: 光祿寺卿(광록시경) 벼슬을 받으셨네!

甲某: 이 벼슬이 무엇이 좋은가?

乙某: 고결한 자리이네!

甲某: 품계(品階)는 어찌되는가?

乙某: 光祿寺에는 ‘卿’, ‘少卿’, ‘丞’, ‘主簿’ 등의 품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 자리인 ‘少卿’일세. 게다가 光祿寺는 ‘堂食’²³⁴이 좋다네. 날마다 양(羊) 두 마리를 시작으로, 軟肉薄餅(연육박병)²³⁵ 먹고 또 술을 몇 잔 한 후에 稍麥(초맥)과 粉湯(분탕)²³⁶을 먹고, 거기다가 糝子(기자)²³⁷ 아니면 馮은 죽(淡粥)을 먹는다네. 그 다음에는²³⁸ 음식을

衰草長亭, 流水孤村, 問甚麼枕剩衾餘, 烟冷燈昏。」

233) 要路: 顯要的地位. 元·缺名《凍蘇秦》第三折: 「如今那有才學的受窮困, 幾時得居要路爲卿相?」(許少峯 編, 《近代漢語大詞典》, 中華書局, 2008年, 頁2179)

234) 原文 ‘湯食’는 ‘堂食’의 誤寫로 보인다. ‘堂食’는 앞의 주석 205)번에서처럼, 관청에서 관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을 말한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뒤의 第34話에는 「一會兒喫罷湯時」이라는 글귀를 볼 수가 있다.

235) 原文 ‘軟肉薄餅’에 대해 ‘밀가루로 얇은 밀전병을 만들어, 익힌 고기를 넣고 돌돌 말아서 먹는다.’라는 ‘夾註’의 설명을 볼 수 있다.

236) 原文 ‘稍麥’는 ‘燒賣’ 등의 여러 이름이 있고, 꽃술 모양을 한, 이른바 각종 소를 넣어 찐 중국식 ‘꽃만두(花卷)’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粉湯’은 당면과 각종 고명을 넣어 만든 국을 말한다. 여기서는 ‘稍麥’을 ‘粉湯’의 수식어로 본다면 ‘稍麥’을 넣어 만든 ‘粉湯’을 말함인데, 諺解에서는 ‘稍麥과 스면 먹고’로 풀이하고 있으므로, 이에 ‘稍麥과 ‘粉湯’ 분리하였다.

237) 原文 ‘糝子’에 대한 諺解는 ‘糝子떡’이다. 《漢語大詞典》 등의 辭書에서 ‘糝子’ 一詞에 대한 풀이를 찾을 수가 없다. 앞의 註 211)번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糝子’와 소리가 같은 ‘棋子’ 一詞에서 답을 엿 볼 수가 있다. 「棋子’는 바둑 돌(알)을 뜻하기도 하지만, ‘바둑알 모양의 음식(如棋的食品)’ 또는 ‘乾糧의 한 종류로 모양이 바둑돌 같다(一種乾糧, 形狀像棋子)’에서 음식의 모양을 알 수 있고, 註 211)번에서 제시한 《金瓶梅》의 用例에서 ‘棋子’가 휴대할 수 있는 ‘乾糧’임을 짐작할 수가 있다: 「西門慶의 행낭에는 말린 닭고기(乾鷄),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臘肉), 전병(果餅) 그리고 기자(棋子) 따위를 지니고 있어, 저녁때 何千戶와 허겁지겁 한 끼를 먹어치운다(西門慶行囊中帶得乾鷄臘肉果餅棋子之

類，晚夕與何千戶胡亂食得一頓」) 따라서 '棋子'는 바둑알 모양의 '건빵'과 같은 음식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諺解는 '棋子'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우리말의 '떡'은「곡식 가루를 찌거나, 그 찌운 것을 치거나 빻아서 만든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는 국어사전의 설명을 볼 수 있다. '糕'는 쌀로 빻은 떡의 한 종류다. '糕'가 '쌀'을 찧어 만든 우리나라의 '인절미', '쫄떡', '부꾸미' 등과 비슷한 음식으로 설명되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 「糕의 주요성분은 멥쌀과 찹쌀이다. 역대에 걸쳐 인구의 이동으로 '糕'는 여러 이름으로 부른다. …… 湖南에서는 '糕'를 '糍粑'라고 한다. 썩으로 만든 '艾糕'는, 그 만드는 방법이 유사하거나 똑같은데 '靑團子'라고 부른다. (糕의主要成份是粳米和糯米, 將兩種米碾磨成粉混合 …… 由于各個歷史時期人口的流動, 糕已經出現多種其它的名稱, …… 在湖南, 糕一般被稱爲'糍粑'; 艾糕在一些地方有類似或完全相同的做法, 被稱爲'靑團子'.) <百度 百科에서 발췌>」 '糕子'一詞에 대한 명확한 풀이를 찾을 수 없고, '糕子'와 소리가 비슷한 '棋'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棋'가 '糕' 또는 '食'字로 변하고, 바둑돌 모양의 '棋'가 '乾糧'으로 또는 '湯食'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글이다: 「糕類兒는 계란과 기름, 조미료 등으로 볶아 만든 바둑돌 크기의 음식인데 일반적으로 마름모꼴 모양이다. 글자는 본래의 '棋'자를借用하였다. 宋나라 吳自牧이 지은 《夢梁錄》 麵食類 에는 '三鮮棋子, 蝦棋子' 등의 이름을 볼 수 있다. …… 후에 '糕', '食' 또는 '糕'로 쓰이고 있다. …… <類篇·卷二十·米部>: '糕, 渠之切, 餅屬' 又<卷十五·麥部>: '糕, 渠之切, 餅屬' <集韻·卷一·平聲·七之>: '糕, 糕, 餅屬, 或從麥'. …… 姚美玲은 <<朴通事諺解>中的元明口語與民俗>一文에서, <<朴通事>諺解에서 볼 수 있는 '糕子'에 대한 풀이는 모순된다고 하여, 山西지역의 民俗와 許寶華, 宮田一의 《漢語方言大詞典》을 인용하여 糕子를 糯米이 있는 湯食이라고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실 <朴通事>와 諺解의 작자는 朝鮮사람으로 漢人들의 食文化에는 별로 밝지는 못하여 먼 밀한 면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라고 본다. <<朴通事>의 夾註에서 '여행하면서 편리하게 먹을 수 있다'(質問)云: 行路便于食之 - 뒤의 第93話 夾註 參考)라고 한 '糕子'는 볶아서 익힌 음식으로, 甘谷 지역의 '糕類兒'라고 불리는 것과 같다. 淸·唐甄<潛書>의 '人懷乾乾糕, 馬囊蒸菘(사람의 품속에는 乾糕가, 말의 짐속에는 蒸菘이)이 실로 그 예이다. 또한 <<朴通事> 夾註에서 <居家必要>의 말을 인용하여 '糕子'는 糯米이 있는 음식(糕子是煮熟帶湯食用 - 뒤의 第93話 夾註 參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지금의 山西, 河南, 山東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이른바 '糕子麵'인데, 蒲松齡의 《聊齋俚曲集》에서 묘사한 '一碗糕子一壺菜, 親身送到燈兒下(糕子 한 사발과 나물 한 그릇을 몸소 燈兒에게 가져다주었다)' 등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 (糕類兒, 一種加雞蛋, 油脂和調味料等炒制的團棋子大小的食品, 一般爲菱形. 字本借用'糕'. 宋·吳自牧《夢梁錄·卷十六·麵食店》: "更有麵食名件: …… 三鮮棋子, 蝦棋子, 蝦魚棋子, 絲雞棋子, 七寶棋子 ……". …… 後作'糕', 或作'食其', '糕'. …… <類篇·卷二十·米部>: "糕, 渠之切, 餅屬" 又<卷十五·麥部>: "糕, 渠之切, 餅屬." <集韻·卷一·平聲·七之>: "糕, 糕, 餅屬, 或從麥". …… 【仲寶按】姚美玲在<<朴通事諺解>中的元明口語與民俗》(《西北民族研究》, 2011年第4期)一文中, 認爲諺解對糕子的解釋有矛盾, 而又證以山西民俗及許寶華, 宮田一《漢語方言大詞典》, 得結論是"糕子"應爲一種對湯的麵食. 其實, <<朴通事>及諺解的作者都是朝鮮人, 他們對漢人的飲食文化未必有十分周詳的了解, 故而難免出現不周, 但并非扞格不通: 質問所言"行路便于食之"的"糕子", 炒熟乾食, 卽甘谷所謂"糕類兒", 淸·唐甄《潛書·五形》"人懷乾乾糕, 馬囊蒸菘"是其例; <居家必要>所言的"糕子"是煮熟帶湯食用, 卽山西, 河南, 山東等地所謂"糕子麵", 蒲松齡《聊齋俚曲集·富貴神仙》"一碗糕子一壺菜, 親身送到燈兒下"及《都城紀勝》等所言當屬此. — <甘谷方言詞語征實(二)> 安仲寶 著, 摘自百度)

차려서 술을 잠시 마시다가 탁자가 나가면 그때서야 아전들이 문서를 가져와서 자주색 비단이 깔린 책상(紫羅書案)에 펼쳐놓고 公務를 아뢴다네. 公務 처리를 시작으로, 해가 서쪽으로 떨어져서야 말에 올라 퇴청을 하시지.

甲某: 그렇게 일을 끝내시면 바로 집으로 가시는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으신가? 자주 이렇게 일찍 회합을 가지시고 늦게 끝나는가?

乙某: 일찍 끝난다고 일찍 집으로 돌아오시는 것은 아니고, 여기저기 곳곳에 나리들을 찾아뵙고 저녁 늦게 한밤중이 돼서야 비로소 말에서 내리신다네!

甲某: 그렇다면 자네들이 고생이 정말 많겠네.

乙某: 다 마찬가지로! 나리들을 따라 다닐 때는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더욱 마음을 써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네.

甲某: 나도 나리를 모시고 다닐 때는 어찌 눈비를 따졌겠는가? 얼마나 많은 배고픔을 참고, 또 얼마나 많은 목마름을 견디어냈겠는가?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 오늘날 나리들께서 요직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이지! 옛말에 ‘苦盡甘來’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第87話

我家裏一個漢子²³⁹，城外種稻子來²⁴⁰，和一個漢兒人²⁴¹厮打²⁴²來。那

238) 原文에서는 「却喫棋子或是淡粥後頭，擺茶飯又吃一會兒酒」로 斷句하고 있다. 諺解는 ‘棋子씩을 먹고 或 茗근 죽을 혼 후에 茶飯 버리고 또 혼 디워 술 먹고’이다. 本稿는 ‘後頭後頭, 擺茶飯, 又吃一會兒酒보았다. ‘茶飯’은 일반적으로 ‘茶飯’을 말함인데, 여기서는 안주거리로 보았다. 즉 ‘棋子’ 또는 ‘淡粥’까지 먹고 나서 상을 치우고, 그 다음에는 ‘간단한 안주를 차려 술 한 잔을 더 한다’로 보았다.

239) 漢子: 男子的通稱. 《水滸全傳》第四回: 「正想酒哩, 只見遠遠地一個漢子挑着一副擔桶, 唱上山來。」(許少峯 編, 《近代漢語大詞典》, 中華書局, 2008年, 頁720)

240) 來: 用作詞尾, 表示一段時間, 相當于“~的時候”. 《紅樓夢》第一百一十回: 「我到你們家已經六十多年了, 從年輕的時候到老來, 福也享盡了。」(《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廝²⁴³先告官，把我家小廝²⁴⁴拿²⁴⁵將去監了貳日。又一個小廝半夜起來，煤場²⁴⁶裏推²⁴⁷煤去時節²⁴⁸，被巡夜²⁴⁹的拿着，冷鋪²⁵⁰裏監着。咳，事不過三日，却又招災，禍不單行真個²⁵¹是。種稻子那廝因何監着？他一家住的漢兒人，不見了幾件衣裳却說我家漢子偷了，那廝性急便合口²⁵²廝打，那廝告官，把我小的²⁵³監了。由他²⁵⁴，無贓時有甚麼事？律條²⁵⁵裏明白有，妄告官司²⁵⁶，抵罪²⁵⁷反坐²⁵⁸。這的便是：“閉門屋裏坐，禍從天上來。”²⁵⁹

241) 漢兒人：也作 漢子、漢兒。古代北方民族對漢族男子的稱號。

242) 廝打：相打，打架。《金瓶梅詞話》第十四回：「你如今還不心死，到明日，不吃人爭鋒廝打，群到那裏，打個爛羊頭。」（許少峯 編，同上揭書，頁1752）

243) 廝：對人不尊敬，輕視的稱號。“那廝們就是對‘歹人’的貶稱。”

244) 小廝：此作“童僕”。《紅樓夢》第三回：「另換了四個眉目秀潔的十七八歲的小廝上來擡着轎子，衆婆子步行跟隨，至一垂花門前落下。」（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2050）【單字解】廝，卑賤之稱。這廝，이놈。又相也。廝見，서르 보다。又汎指人亦曰廝。小廝，아학，瞎廝，쇼경。

245) 拿：捉，擒獲。

246) 煤場：煤場應是煤市中貯煤之地。

247) 推：【夾註】用輻輳載煤炭，一人推運而來。

248) 時節：時候。《七國春秋》卷中：「只見你每來時節，有一人從後門去了。」（劉堅 江藍生 主編，《元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8年，頁288）

249) 巡夜：夜間巡邏。元·蕭德祥《勸狗殺夫》：「見哥哥迎着風冒着雪，倒在當街睡。我只怕鐘聲盡，被那巡夜的凌逼。」巡夜的，即巡夜的人。

250) 冷鋪：地方治安人員及巡夜兵卒值勤歇腳的地方。宋·孟元老《東京夢華錄》：「每坊巷三百步許有軍巡鋪一所，鋪兵五人，夜間巡警，收領公事。」乞丐等寒夜往往投宿其中。《救孝子》楔【賞花時幺篇】白：「我是賽盧醫，行止十分低。常拐人家婦，冷鋪裏做夫妻。」（劉堅 江藍生 主編，《元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8年，頁167）

251) 真個：的確，實在。《水滸全傳》第二四回：「真個是布機也似好針線，又密又好，其實難得！」（許少峯 編，同上揭書，頁2371）

252) 合口：爭吵。《小孫屠》十出：「你如今與我收拾行李，和我一同去還心願，也免在家閑爭合口。」（劉堅 江藍生 主編，《元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8年，頁118）

253) 小的：稱老僕、下人。元·缺名《延安府》第二折：「這個是你衙門裏小的，打甚麼不緊！」（許少峯 編，同上揭書，頁2044）

254) 由他：表示聽凭自然，隨便；算了。《金瓶梅詞話》四三：「西門慶道：“端的是誰拿了？由他，慢慢兒尋罷。”」（白維國 編，《金瓶梅詞典》，中華書局，1991年，頁640）

255) 律條：法律條文。

256) 官司：官府，衙門。

257) 抵罪：因犯罪而受到相應的處罰。

258) 反坐：告人不實而自己得誣告之罪。就是被誣告的罪名所應得的刑罰加在誣告人身上。

259) 閉門屋裏坐，禍從天上來：猶言禍從天降。《清平山堂話本·錯認尸》：「正是閉門屋裏坐，端使禍從天上來。」

【번역】

甲某: 우리 집 하인 하나가 성문 밖에서 벼를 심다가 한 漢人 한 사람과 서로 싸움이 붙었다네. 그 작자가 먼저 관아에 고발을 하여 우리 집 아이를 잡아다 이들을 가둬놓고 있다네. 또 한 녀석이 한 밤중에 일어나 저탄장(貯炭場)에 석탄을 실러 갔다가 야경꾼들에게 붙들려 냉포(冷鋪)²⁶⁰에 감금되어 있네. 허참! 일터지고 사흘도 지나지 않아서 일이 또 터지니, '禍不單行(재앙은 번번이 겹쳐옴)'이라는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인 것 같네!

乙某: 벼를 심던 그 아이들은 무슨 연유로 갇혔는가?

甲某: 그 아이와 함께 사는 漢人이 옷 몇 가지가 보이지 않자 우리 집 하인놈이 훔쳤다고 했다네. 이 하인 녀석은 성질이 급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싸움질을 했는데, 그 漢人 녀석이 관아에 고발을 하여 우리 집 하인 녀석이 잡혀 있다네.

乙某: 그냥 내버려 두게나! 장물이 없는데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거짓으로 관아에 고발하면,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라는 조항이 법조문에 분명히 있다네! 이게 바로 '閉門屋裏坐, 禍從天上來(집 안에만 있어도 재앙을 당한다)'라는 경우일세!²⁶¹

< 參考文獻 >

原典類

《朴通事新釋·朴通事新釋諺解》, 서울대학교규장각.

《老乞大·朴通事諺解》亞細亞文化史(影印本), 1973年.

汪維輝, 《朝鮮時代漢語教科書叢刊》(全四冊), 中華書局, 2005年.

260) 原文의 '冷鋪'는 앞의 註 250)번에서처럼, 지방의 치안요원이나 순라꾼들이 근무할 때 머무는 쉼터를 말함이다.

261) 原文 '閉門屋裏坐, 禍從天上來'는 '재앙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속담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행이 닥친다'의미를 비유한 말이다.

- 錢南揚 著,《永樂大典戲文三種校注》,臺灣:華正書局,1990年。
王學奇等校注,《關漢卿全集校注》,河北教育出版社,1990年。
李小強·王小忠注釋,《西廂記》,中國文聯出版公司,1997年。
劉 堅·蔣紹愚 主編,《近代漢語語法資料彙編》(元代明代卷),商務印書館,2002年。
王士點、商企翁(元),《秘書監志》,百度(인터넷)電子版。

詞典類

- 張 相,《詩詞曲語辭匯釋》,中華書局,1991年。
_____,《詩詞曲語辭匯釋》,上海古籍出版社,2009年。
顧學頤·王學奇,《元曲釋詞》卷一,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3年。
_____,《元曲釋詞》卷二,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4年。
_____,《元曲釋詞》卷三,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8年。
_____,《元曲釋詞》卷四,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0年。
劉 堅·江藍生 主編,《元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8年。
_____,《宋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9年。
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
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
龍潛庵 編著,《宋元語言詞典》,上海辭書出版社,1985年。
高文達 主編,《近代漢語詞典》,知識出版社,1992年。
吳士勛·王東明 主編,《宋元明清百部小說詞語大辭典》,陝西教育出版社,1992年。
呂叔湘 主編,《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商務印書館,1999年。
_____,《中國文法要略》,商務印書館,1982年。
張惠英,《金瓶梅俚俗難詞解》,社會科學文獻出版社,1993年。
《中朝詞典》,中國民族出版社,1986年。
《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1991年。
中國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纂室編,《現代漢語詞典(修訂本)》,商務印書館,1986年。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現代漢語詞典(修訂本)》,商務印書館,2001年。
王 鏞·曾明德,《詩詞曲語辭集釋》,語文出版社,1991年。
王 鏞,《詩詞曲語辭例釋》,中華書局(增訂本),1991年。
_____,《唐宋筆記語辭匯釋》,中華書局(增訂本),1990年。
_____,《宋元明市語匯釋》,中華書局(修訂增補本),2008年。

- 蔣禮鴻 主編 《敦煌文獻語言詞典》，杭州大學出版社，1994年。
 _____著 《敦煌變文字義通釋》，上海古籍出版社，1997年。
 劉昌惇，《李朝語辭典》，延世大學校出版部，2005年。
 藍立冀 編著，《關漢卿戲曲詞典》，四川人民出版社，1993年。
 李法白·劉鏡芙 編著，《水滸語詞典》，上海辭書出版社，1989年。
 張永言 等編，《簡明古漢語字典》，四川人民出版社，1991年。
 卜 鍵 主編，《元曲百科大辭典》，學苑出版社，1991年。
 史 東，《簡明古漢語詞典》，雲南人民出版社，1985年。
 王學奇·王靜竹 撰著，《宋金元明清曲辭通釋》，語文出版社，2002年。
 白維國 編，《金瓶梅詞典》，中華書局，1991年。
 李 申 編，《金瓶梅方言俗語匯釋》，北京師範學院出版社，1992年。
 譚其驤 主編，《中國歷史地圖集》，地圖出版社，1982年。
 謝紀鋒 編纂，《虛詞話林》，黑龍江人民出版社，1992年。
 楊樹達 著，《詞詮》，中華書局，1990年。
 廖珣英 編，《全宋詞語言詞典》，中華書局，2007年。
 陸澹安 著，《小說詞語語彙釋》，上海錦綉文章出版社，2009年。
 《中國俗語大辭典》，上海辭書出版社，1989年。
 孫治平 等 編主，《中國歇後語》，上海文藝出版社，1988年。
 劉昌惇 著，《李朝語辭典》，延世大出版部，2005年。
 박성훈 편저，《翻譯朴通事辭典》，태학사，2010年。
 李行健 主編，《河北方言詞匯編》，商務印書館，1995年。
 정 광·양오진 역주，《노박집담역주》，태학사，2011年。

著書類

- 呂叔湘 著 江藍生 補，《近代漢語指代詞》，學林出版社，1985年。
 胡安竹等編，《近代漢語研究》，商務印書館，1992年。
 馮春田，《近代漢語語法研究》，山東教育出版社，2000年。
 梁伍鎮，《老乞大朴通事研究》，태학사，1998年。
 太田辰夫 著 蔣紹愚·徐昌華 譯，《中國語歷史文法》，北京大學出版社，1987年。
 香坂順一著 江藍生·白維國 譯，《白話語匯研究》，中華書局，1997年。
 _____，植田均 譯，《水滸詞匯研究(虛詞部分)》，文津出版社，1992年。
 江藍生，《近代漢語探源》，商務印書館，2000年。

- 俞光中·植田均,《近代漢語語法研究》,學林出版社,2000年。
- 孫錫信,《近代漢語語氣詞》,語文出版社,1999年。
- 董志翹·蔡鏡浩,《中古虛詞語法例釋》,吉林教育出版社,1994年。
- 曹廣順,《近代漢語助詞》,語文出版社,1995年。
- 王雲路 方一新,《中古漢語語詞例釋》,吉林教育出版社,1992年。
- 胡竹安·楊耐思·蔣紹愚 編,《近代漢語研究》,商務印書館,1992年。
- 蔣紹愚·江藍生 編,《近代漢語研究(二)》,商務印書館,1999年。
- 北京大學中文系1955、1957級語言班編,《現代漢語虛詞例釋》,商務印書館,1982年。
- 房玉清著,《實用漢語語法》,北京語言學院出版社,1996年。
- 呂叔湘主編,《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商務印書館,1999年。
- _____,《漢語語法論文集》(增訂本),商務印書館,1984年。
- 日·青山定雄編,《中國歷代地名要覽》,臺灣:洪氏出版社,1975年。
- 蔣紹愚·曹廣順 主編,《近代漢語語法史研究綜述》,商務印書館,2005年。
- _____,《近代漢語研究概要》,北京大學出版社,2005年。
- 李泰洙,《老乞大四種板本語言研究》,語文出版社,2003年。
- 傅雨賢 等著,《現代漢語介詞研究》,中山大學出版社,1997年。
- 魏耕原,《唐宋詩詞語詞考釋》,商務印書館,2006年。
- 郭作飛,《張協狀元詞彙研究》,巴蜀書社,2008年。
- 張美蘭,《近代漢語論稿》,江西教育出版社,2004年。
- 陳秀蘭,《敦煌變文詞彙研究》,四川民族出版社,2002年。
- 程湘清 主編,《宋元明漢語研究》,山東教育出版社,1992年。
- 李嵩興 等著,《元代漢語語法研究》,上海教育出版社,2009年。
- 장숙영 윤희,《번역박통사 (상) 주석》,한국문화사,2008年。
- 王 霞 等 譯註,《譯註 朴通事諺解》,學古房,2012年。

論文

- 楊聯陞,〈老乞大朴通事裏的語法語彙〉,《東方學志》,1955年(臺灣)。
- 慎鏞權,〈老乞大가 반영하는 漢語의 성격에 대하여〉,《中國語文學》第48輯,2006年。
- 王 霞·유재원,〈朴通事諺解譯註(1)〉,《中國研究》第37卷,2006年。
- 최재영·정운철,〈朴通事諺解譯註(2)〉,《中國語文論譯叢刊》18輯,2006年。
- 王 霞·유재원·최재영,〈朴通事諺解譯註(3)〉,《中國研究》第40卷,2007年。
- 王 霞·유재원,〈朴通事諺解譯註(4)〉,《中國研究》第42卷,2008年。

- 王 霞·崔宰榮, <朴通事諺解譯註(5)>, 《中國語文論譯叢刊》第23輯, 2008年.
 拙稿, <董西廂與王西廂裏的語氣助詞用例考>, 《中國語文論叢》第36輯, 2008年.
 _____, <近代漢語語氣詞用例考(上)>, 《中國語文論譯叢刊》第22輯, 2008年.
 _____, <老乞大語彙考>, 《中國語文論叢》第39輯, 2008年.
 _____, <老乞大語彙考(二)>, 《中國學論叢》第25輯, 2009年.
 _____, <老乞大語彙考(三)>, 《中國語文論叢》第41輯, 2009年.
 _____, <老乞大語彙考(四)>, 《中國語文論叢》43輯, 2009.
 _____, <老乞大語彙考(五)>, 《中國語文論叢》44輯, 2010.
 _____, <老乞大語彙考(六)>, 《中國語文論譯叢叢》27輯, 2010.
 _____, <原本老乞大語彙註釋(一)>, 《光州大學校 人文科學》10輯, 2010.
 _____, <原本老乞大語彙註釋(二)>, 《光州大學校 人文科學》11輯, 2011.
 _____, <原本老乞大新註新譯(一)>, 《中國語文論叢》47輯, 2010.
 _____, <原本老乞大新註新譯(二)>, 《中國語文論叢》48輯, 2011.
 이수진, <老乞大處置文의 把/將字研究>, 《中國學》26輯, 2006年.
 맹주익, <老乞大諺解 諸板本에 반영된 통사구칙 난점의 유형>, 《중국학연구》42집.
 맹주익, <老乞大諺解類 諸板本中'着'의 번역에 관한 연구>, 《중국연구》제39권.
 金美娘, <老乞大 4종판본 진치사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年.
 鄭 旭, <老乞大이 V着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年.
 鐘 烱, <民族史研究中的'他者'視角>, 《歷史研究》2008年 第1期, 2008年.

< Abstract >

Nogeoldae(老乞大), written in nearly 20,000 words, is of two volumes which is based on the clue that Goryeo(高麗) business people coming to China for business and in the form of conversations, it describes what was happening on the way: accommodation, trade, as well as some parts about dinner party plus drinking, disease cure. Baktongsa(朴通事) was written in nearly 30000 words, one-third more than Nogeoldae(老乞大) with 3 volumes. The book, in the form of dialogues or one person narration, introduces every aspect of Chinese society, including dinner party, trade, agriculture, crafts, sue, religion. entertainment,

sceneries, etc. The two books are of high value historical documents, just as the well-known professor Yang Lian Cheng(楊聯升) said, "in the point view of history, there are plenty of recordings about the customs and conventions for Yuan(元) and Qing Dynasty(清代) and also in the perspective of language study, the books are valuable historic materials about the spoken words at the end of Yuan Dynasty(元代) as well as and the beginning of Ming Dynasty(明代). From Yuan and Qing Dynasty(清代), the series of the books of Nogeoldae(老乞大) and Baktongsa(朴通事) are precious documents for studying the changing of Chinese words in Yuan(元) and Qing Dynasty(清代).

Baktongsa(朴通事) and Nogeoldae(老乞大) are both conversational text books in learning Chinese for both Goryeo(高麗) and Joseon Dynasty(朝鮮) people. With regard to the time when the author lived, there might not be confirmation, according to the words and other documents, it is approximately estimated that the admitting and compiling of the books date back to Yuan Dynasty(元代). the initial publication was during the year of 1346, in 1998, the so called original edition Nogeoldae(老乞大) was found in Korea and the Korean schoolers called it the Original Nogeoldae(原本老乞大). The present ones are chiefly of 3 kinds: Beonyeok Baktongsa(翻譯朴通事) volume 1, in 1756; Baktongsa eonhae(朴通事諺解) volume 1,2,3,in 1677 ; Baktongsa sinseok(朴通事新釋)(in 1765), among which Beonyeok Baktongsa(翻譯朴通事) is the edition of Baktongsa(朴通事) but it is a pity that the book is not complete(there being only volume 1, not volume 2 and 3). However, Beonyeok Baktongsa(翻譯朴通事) is the modification done by PARK SE HAW(朴世華) and the other 12 people. The Chinese parts of Beonyeok Baktongsa(翻譯朴通事) and Baktongsaeonhae(朴通事諺解) are nearly the same except that the fewer parts are different.

Baktongsaeonhae(朴通事諺解) is a valuable, detailed explained material and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studying Chinese language and as well as its culture and also to the well understanding of the original work. In recent years, scholars from Korea, Japan and other countries have regarded A Translation and Annotation Baktongsa(朴通事新註新譯) as a subject on the basis of former

works, hoping that there will be more addition and further development to it. In addition, it is a moderate motivation to the research on and Nogeoldae(老乞大).

Key Words: Baktongsa, Baktongsa eonhae, Annotation of Baktongsa, Translation of Baktongsa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6. 10. 28.	2016. 11. 28.	2016. 12. 04.	2016. 12. 12.	2016. 12. 31.

